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12호

Tuesday, May 7, 2024 A

“7명 무장경관이 한 명 제압하려 총 쏘았나”

‘경찰 총격에 아들 사망’
양민 박사 인터뷰

“당시에 아들은 칼이 없었다”
늦은 구급차 도착도 이해 못해
“찢어지고 허망한 심정” 토로

3일 LA카운티 검시국은 LA한인타운 포플렉스(4plex)에서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정신질환 환인 남성의 신원을 양용(40)씨라고 밝혔다.

LAPD는 4일 성명을 통해 “양씨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고 집에서 나올 것을 권유했었다”며 “양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거실에서 칼을 들고 있는 양씨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잠시 후 양씨가 경찰을 향해 다가왔고 경찰 총격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성명에서 “양씨는 총격을 받고 칼을 떨어뜨렸고, 경찰은 현장에서 6인치 정도의 칼날이 달린 11인치짜리 부엌칼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경찰 총격에 사망한 한인



총격 사건현장 부근에서 양민(왼쪽) 박사가 에런 폰세(오른쪽) 올림픽 경찰서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남성의 유가족은 숨진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성토했고 있다. 고인의 아버지는 LA 대학 진학 컨설팅업체 대표 양민(65) 박사다. 양 박사는 LA경찰국(LAPD) 측의 발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적했다.

지난 3일 양 박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마음이 찢어지고 허망하다”라고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경찰이 없는 와중에 LAPD 공보실이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고 더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양 박사는 “아들이 칼로 무장했었다는 발표가 이해가 안 된다”며 “경찰이 돌아가고 저녁에 집에 다시 들어왔을 때 없어진 칼은 하나도 없었다. 당시 아들이 소지한 칼은 더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에 올라간 경찰이 곧 아들을 데려와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에 얹힐 거라 생각했지만, 돌아온 건 아들의 사망 소식이었다. 양 박사는 “경찰이 올라간지 불과 30분도 안 돼서 총성과 함께 아들의 비명이 들렸다. ‘고무총을

썼나’라고 생각했지 실총이라곤 생각도 안 했다”며 “하지만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는 걸 느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지길래 무슨 일이나 물었는데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고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양 박사는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는 “경찰 7명이 남성 한 명을 제압하지 못해 총을 쏜 게 말이 되나”라며 “거기다 총소리가 난 게 정오쯤인데 30분도 더 넘어서 구급대원이 도착했다. 과연 아들을 살리려는 생각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던 아들은 지난 3년 동안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고 양 박사는 전했다.

그는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괜찮았었지만 지난 4월 들어 힘든 기색을 보이며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버틴다고 얘기해줬다”며 “사건 전날도 본인 집에 가던 아픈 친구(자신)가 있어 가기 싫다며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 4면 ‘경찰 총격’으로 이어집니다

예비경선 조기투표 시작 VA 연방상하원의원 선거

오는 11월 연방상하원 선거를 위한 예비경선의 조기투표 절차가 일제히 시작됐다.

버지니아는 연방상하원의원 두 석 중 한 석, 연방하원의원 11석 중 6석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이 치뤄진다. 연방하원의원 선거는 본 선거일인 11월5일에 11석 전체를 대상으로 치뤄지지만 예비경선의 경우 단일후보 출마지역은 예비경선이 건너뛰고 곧바로 본선거만 열린다.

페어팩스 카운티 선거국 등은 제한된 장소에서만 조기투표를 개방하고 있다. 우편 부재자 투표의 경우 6월7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예비경선 조기투표 중 현장투표의 경우 신분증명용 ID를 지참해야 한다.

ID가 없거나 사전 유권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잠정투표 형태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선관위에서 유권자 실체를 확인해야만 정식 표로 산입된다.

버지니아는 양당 중 한 당의 예비경선에만 참여할 수 있다. 버지니아는 2008년 대선 이후 줄곧 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방상하원의원 후보를 선택해왔다.

>> 3면 ‘조기투표’로 계속 김옥재 기자

‘드림머’에 오바마케어 가입 허용

백악관 발표, 11월부터 시작
연방정부 보조 의료보험 제공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자가 된 후 추방유예(DACA)를 받은 일명 ‘드림머’들에게 연방정부가 의료보험 혜택을 허용한다.

2일 백악관은 연방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ACA)’ 가입 자격을 DACA 수혜자에게도 확대, 허용한다

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DACA 수혜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연방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이날 “전국의 드림머들이 저렴하고 질 높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CA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며 “드림머들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최소 10만여

명의 DACA 수혜자가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전국의 DACA 수혜자는 53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4870명이다.

그동안 DACA 수혜자들은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구분돼 연방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오바마케어는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장연화 기자



“찬양으로 한마음 된 실업인들” 북미주 한국기독교실업인회(KCBMO)의 제27차 전국 대회가 오는 6월27일 워싱턴에서 개막 예정인 가운데, KCBMC 동부연합회(회장 김형주)가 이를 기념하는 찬양예배를 지난5일 페어팩스 소재 파운데이션 커피 로스터에서 개최했다. >> 관계기사 3면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피
순금 여기 풀만지못피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703.639.0882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25명 불참해도 '특검' 가결 위기... 여당, 낙천·낙선자 단속 비상

여야가 21대 국회의 끝자락에서 '채상병 특검법'으로 충돌한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불참 속에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재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다시 국회로 넘길 경우,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날인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다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가 '재적 의원 절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법안을 재의결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법안을 거부할 수 없다. 정치권은 이번 표결을 이른바 '쌍특검(김 여사 특검·대장동 특검)' 등 향후 가혹할 특검 정국의 서막으로 여기고 있다.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여야의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 단계부터 서로 배수진을 치고 '표 단속' 일합을 겨룰 수밖에 없는 이유다.

6일 현재 21대 국회 재적 의원 수는 296명이다.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본회의장

대통령 거부권 댄 28일 재표결 전망 21대 국회로 임기 끝나는 58명 변수 전원 출석해도 15명 찬성하면 가결 새 원내대표 첫 과제는 이탈표 막기

오는 9일 치러지는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의원 3자 구도로 확정됐다. 사진은 6일 국회에 계신된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결과 공고문. [연합뉴스]

에 모두 나온다고 가정할 때, 197명이 찬성하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바뀌 말하면, 반대표가 99표만 나와도 부결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은 113명이다. 전원이 참석해 반대하면 특검법을 저지할 수 있다.

문제는 여당 내 이탈표 가능성이다. 무기명 비밀투표인 데다 지도부가 공천권을 쥐고 있던 총선 전과 달리, 의원들의 독자 행동을 단속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특히 58명에 달하는 불출마·낙천·낙선 의원(불출마 17명, 낙천 22명,



낙선 19명)이 변수다. 이 중 15명만이 이 탈해도 특검법을 막기 어려워진다.

불출마한 김용 의원은 이미 지난 2일 표결 때 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6일 페이스북에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라고 적었다. 안철수·이상민·조경태 의원 등 일부 중진도 찬성 의사를 밝혔었다. 안 의원은 지난 표결 때 퇴장했지만, 이틀 뒤 "다시 표결하면 찬성할 생각"이라고 SNS에

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 참패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는 분위기가 여전히 크다. 불출석이나 기권 등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지방의 낙선·낙천자들 사이에선 "지역구 인사 돌기도 버거운데 임기 마지막 날까지 서울에 가야 하느냐"는 말도 나온다.

출석 의원이 줄면 의결 정족수(3분의 2) 문턱도 낮아져 민주당에 유리해진다. 여당 의원 25명이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는 180명이 된다. 다만 당 지도

부에선 "낙선·낙천자라도 다음 행보를 고려하면 당의 뜻을 무시할 수 없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진윤계 의원은 "반대표를 누가 던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출석한 건 다 안다"며 "특검법이 통과 되면 이들이 먼저 배신자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진윤"이 철규 의원 등이 물밑에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야당에도 이탈표 변수는 있다.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됐거나 탈당한 의원 9명을 포함해, 범(汎)야권 15명의 의원이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민주당의 한 불참 의원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불참했을 뿐"이라며 "재의결에는 반드시 참석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채널A에 출연해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자. 그때 (제대로) 못하면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조건부 합의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심새롬·정용환 기자

여당 원내대표 '범친윤 3파전' 당내 "정부에 목소리 낼지 의문"

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3파전으로 압축됐다. '진윤' 이철규 의원은 빠졌지만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계속된다.

추경호(대구 달성, 3선 당선) 의원이 지난 5일 막판 출사표를 던지며 추 의원과 이종배(충북 충주, 4선 당선) 의원, 송석준(경기 이천, 3선 당선) 의원의 3자 구도가 확정됐다. 여당의 차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192석 범(汎)야권을 상대하는 한편, 4·10 총선에서 참패한 당의 분위기를 수습하고 체질 개선에 나서게 과제다.

특히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인 수직적 당정 관계 개선도 차기 원내대표의 몫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가 민심과 괴리된 판단을 할 때 당이 이를 바로잡지 못해 총선에서 졌다"며 "정부에 쓴소리할 수 있는 여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보자들은 모두 범친윤 인

사다. 당초 추대설까지 돌던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했지만, 친윤 대 비윤 구도는 짜이지 않았다. 한 조선 의원은 "세 후보 모두 친윤 핵심과는 거리가 있지만 비윤도 아니다"며 "정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낼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군이 정부-여당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총선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지 솔직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세 후보 모두 관료 출신이란 점을 수평적 당정관계 수립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의 이유로 거론한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출신이고, 국무조정실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관료 출신이 당정 관계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솔직히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민우 기자

2030 예민한 '연금' 겨눴다

지난달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연금 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여론에서 연금 개혁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재정 안전성에 방점을 찍고 2030을 겨냥한 연금 개혁 이슈로 선명성 경쟁 중이다.

세 사람 모두 공론화위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는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을 선택했다. 재정 안전성에 중점을 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2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 연금특위의 개혁안을 적용하면 1안은 2061년, 2안은 2062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높아져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1안을 적



나경원

안철수

용하면 2093년까지 702조원의 누적 적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어른이 더 받고 미래 세대 빚 늘려"(나경원), "베 이비블 세대 연금을 위한 빚 폭탄 떠넘기기"(안철수),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유승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나 전 원내대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연금·구연금 분리' 개혁을 화두로 꺼냈다. KDI는 지난 2월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된 기존 국민연금을 구연금으로, 미래 세대는 신연금을 새로 만드는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

하며 개혁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연금특위는 연금제도 파탄에 눈 감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썼다. 유력 당권 주자들의 연금개혁 메시지를 두고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금 문제에 민감한 2030세대를 겨냥해 '청년세대를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정작 합의안을 확정 지어야 할 연금특위는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등 유럽 출장에 나선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29일까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년 7개월을 이어 온 연금특위 논의는 물거품이 된다. 당정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공론화위의 안을 반대하는 점도 합의의 걸림돌이다. 연금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해의 출장은 부담스럽지만, 그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워싱턴 날씨 (°F)

8일(수) 87~69	11일(토) 69~55
9일(목) 80~63	12일(일) 67~55
10일(금) 69~54	13일(월) 69~58

5월 7일(화) 76~67

워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Beer & Wine	창고
유명 델리 DC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상부입주 건물 1층, 손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발티모아 부근 창고 임대 구하는 분 5000-8000
버블티 가게 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의 한달 1만6천, AP 36만불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창고자리 임대 전기시설 완비, 9000 SF, VA 현근
식당 자리	도장	그로서리
6,408 SF, 알바나 메릴랜드	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스페니쉬 그로서리 자리 5,484 SF, 폴스처치, 버지니아
식당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태권도장 자리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상가
식당 자리 7,100 SF,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와싱턴 메릴랜드	사무실	단독 건물 백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식당 자리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에난데일 사무실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합, 35만불	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손수익 52만불, 8백만불
식당 자리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부근	사무실 자리 임대 고급, 타이슨스코너 클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발티모아 상업건물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
식당 자리 78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사무실 자리 임대 워싱턴 디씨, 교통좋은 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 찾습니다	주택
식당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맥클린		콘도 방2, 화2, 차고1, 메트로근처 웨그맨 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승경호

주 택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투자 컨설팅
사업체

주재원 렌딩 서비스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판결 불복해 항소… VA한인회장 사퇴 안할 것”

버지니아 한인회장 은영재 씨가 ‘횡령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은 회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고 항소했기 때문에 버지니아 한인회장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한 은 회장은 ‘법원 판결문’과 ‘변호인 측 최후진술서’ 등 재판 문서를 공개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특히 은 회장은 “수년 전 이 씨가 유지로 있는 지역 경찰서에 변호사 없이 출석해 조사 받았던 것이 내 실수였다”면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혐의를 소명한 충분한 증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진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은 회장은 사법부와 검찰 측의 혐의 및 판결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우선

은 회장은 “횡령했다는 1만5천달러는 의손녀 학자금이나 아니라 이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에 가져와 남은 돈을 나에게 의손녀 용돈, 학비 등으로 보내 주라고 맡겼던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씨에게 한국의 내 통장을 맡겨 놓은 상태에서, 내가 받은 1만 5천달러는 충분히 서로 협의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런 단순한 돈 계산 문제로 검사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법원에서 형사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따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법으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은 회장이 공개한 판결



은영재 씨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에 따르면 은 회장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법원 측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피고인(은 회장)이 맡긴 한국 통장에서 (이 씨가) 임의로 입출금을 한 사실이 없었고 ▶(은 회

장이) 이 씨를 형사 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 했으며 ▶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 해 이런 주장으로 이 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2천500만원 형이 선고됐다고 적시했다. 또한 각 범행이 이 씨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횡령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 대한 횡령 건 고소를 취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문은 덧붙였다.

한편, 은 회장의 ‘회장직 사퇴 불가’ 입장에 대해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항소를 해도 판결로 무죄가 증명 될 때까지 기존 판결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억울해도 반성의 뜻이 있다면 사퇴하고 명예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로 반응했다. 박세용 기자



‘역대급 무더위’ 5월 이상고온 예상

워싱턴 포스트 등 지역언론이 이번 5월 평균 기온이 예년에 비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5월 평균 기온이 예년 평균인 69-72도보다 2-5도 높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5월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5년으로 73.2도였다. 강수량도 예년평균 3.92인치보다 많은 4-4.5인치가 예상된다.

지난 4월 평균기온도 60.5도로 기상관측 이후 열번째도 더웠다. 4월 예년 평균기온은 58.2도다.

4월 강수량은 2.06인치로 평균보다 1.15인치 적었다. 김욱재 기자



“찬양으로 한마음된 KCBMC 동부 연합”

KCBMC 27차 전국 대회 성공기약 찬양예배 성황

북미주 한국기독교실업인회(이하 KCBMC)의 제27차 전국 대회가 오는 6월27일 워싱턴에서 개막 예정인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찬양예배가 지난5일 페어팩스 소재 ‘파운데이션 커피 로스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KCBMC 동부 연합회(회장 김형주)가 주관한 찬양예배에 강사로 나선 지호준 CBMC 대학장(JC 회계법인 대표)은 “오하이오의 평범한 한인 대학원생이 박사학위를 받고 오늘날의 성공을 일구기까지는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지 학장은 “미국의 수도에 살고 있는 ‘북

반’이 이곳 회원 여러분들도 기도와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50여명의 참석자들은 성보영 목사가 이끄는 Deep&Wide 찬양에 한 목소리로 화답하며 오는 6월27일 개막하는 ‘KCBMC 전국 대회’의 성공을 다짐했다. 김형주 회장은 “전국에 워싱턴 기독교실업인들의 위상과 믿음을 알릴 수 있도록 대회 성공에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지휘한 강교은 KCBMC 이사(북미주워싱턴대회준비위원장)는 “감동적인 찬양예배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사역 이야기를 나누고 한층 더 돈독해진 회원들의 하나된 힘을 공감했다”면서 “하나되는 은혜를 기도로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세용 기자

“행복은 내 안에... 내 마음의 정원 잘 가꾸어야” KCPC 8B 공동체 ‘연애 & 관계 세미나’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류영렬 목사, 이하 KCPC) 8B 공동체(노명우 목사)가 주최하는 DMV지역 30~40대 싱글 청·장년들을 위한 만남/연애/결혼 세미나 ‘더 시그널-이 끝남’이 지난 4일 60여명이 참석해 오묘한 분위기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를 진행한 김영옥 교수는 “싱글일 때 불행한 사람은 결혼을 해서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며 결국 자존감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다 보면 그 정원에서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며, 꼭 결혼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행복한 자아를 위한 여정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생의 성공은 꼭 결혼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노명우 목사는 “더 시그널-이 끝남’ 세미나는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월 1회 지속적 만남을 통해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매칭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가을 수련회 개최 등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남의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싱글 남녀 이외에 커플들이 참여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유형들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KCPC의 8B 공동체는 35세~55세 싱글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믿음 안에서 배우자 만나기를 원하는 싱글 공동체이다. 김윤미 기자



▶1면 ‘조기투표’에서 이어집니다.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민주)은 민주당 단독 후보이지만, 공화당은 5명이 경합한다.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는 북버지니아 지역의 제7지구와 제10지구, 햄튼 로드 지역의 제2지구 경쟁이 치열하다. 제7지구와 제10지구는 특히 민주당 현역의원이 주지사 선거 출마와 질병을 이유로 불출마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 예비경선이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

이밖에도 밥 굿 연방하원의원(공화)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2지구의 경우 민주당 후보의 기세가 무섭다.

굿 의원은 의회프리티드 코커스 회장으로 강경파의 대부로 알려져 있으나 대선 예비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하는 바람에 친트럼프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욱재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 사립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탐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L&C UNIVERSAL GOLF

Leader in the World of Golf Instruction

NEW

센터빌에서 **그랜드 RE-오픈!!** 골프 열기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L&C Universal Golf 실내 골프장으로 오세요.

골프 아카데미 스쿨

- 일반인 레슨, 교정
- 슬라이스, 드라이버 비거리 향상 전문 교습
- 철저한 1:1 개인 레슨으로 이루어지는 정교한 아이언샷, 퍼팅 강습
- 주니어 연습생 레슨
- 회원 스크린 영상 서비스
- 하루 1시간, 3개월 후 변화

센터빌 던킨도너츠 바로 뒷 건물

571-225-5342(직통) / 571-486-0909 14637 Lee Hwy. #109, Centreville, VA 20121

총성 2시간 만에 부모에게 아들 죽음 알려

경찰 총격 시간대별 재구성
“밖에 있던 가족 총소리 듣고
집 들어가려는데 경찰 제지
내부상황 설명없이 접근 차단”

지난 2일 경찰 총에 맞아 숨진 한인 남성 양용씨의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본지는 그날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자 유가족인 양민 박사의 인터뷰와 본지가 입수한 당시 LAPD의 라디오 콜을 기반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했다.

◆사건 전날 5월 1일(수)

-오후 1시: 양박사 부부, 피코 블러바드 선상 아들 집에 차 타고 방문. 식당으로 가기 위해 아들을 픽업해 차를 함께 탔으나 아들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아들 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결정함.

-오후 5시: 아들과 시간을 보낸 뒤 양박사 부부는 집으로 귀가.
-오후 7시 30분: 휴대폰과 지갑을 양박사 차에 놓고 내린 것을 발견한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10분을 달려 양박사 집으로 찾아옴. 물건을 찾은 아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양박사 집에서 하루 자고 가기로 함.

◆사건 당일 5월 2일(목)

-오전 3시: 소파에서 잠을 청한 아들이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아들과 같음을 우려한 양박사 부부는 집에서 나와



3일 경찰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역 인근에서 LAPD 경관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근처 맥도날드에서 따로 시간을 보냄.
-오전 9시: 집 주차장에 도착. 양박사 아내가 아들 상태를 확인하고자 먼저 올라감.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나자 아들이 “누구나”고 했고 엄마라고 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임.

-오전 9시 35분: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부부는 정신건강국(DMH) 24/7 헬프라인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함.

-오전 10시 50분: 한인 포함 DMH클리니션 2명이 현장에 도착함. 양박사가 클리니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기 시도함. 양박사가 문을 반쯤 열고 집에 들어갔을 때 뒤에 클리니션을 본 아들이 나가라고 소리침. 결국 양박사와 클리니션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찰 도움을 받기

로 함. 당시 클리니션이 경찰에 연락함.
-오전 11시: 경찰이 신고를 접수함.
-오전 11시 30분: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관 2명과 양박사가 함께 다시 집에 올라감. 하지만 아들이 문 열길 거부해 다시 내려옴. 현장에는 경찰차 최소 5대가 도착함. 경관 7명이 집 앞 거리에서 양박사와 병원 이송 방법 논의함. 양박사는 아들의 180cm 신장 등 체격, 무기 비소지 등을 알려주고 현관 키를 경찰에 전달. 경관들만 양박사 집으로 다시 진입.
-정오: 양박사 집에서 총격 발생. 1-2초 동안 4발이 연사됨. 밖에서 아들의 비명을 들음. 경찰은 총격 후 무전을 통해 “모든 부서, 경관 도움 필요(All units, officer needs help)”를 알리며 지원 요청.
-오후 12시 02분: 경찰, 무전 통해 “용의

자가 구금됐다(suspect in custody)”고 알림. 총격이 발생한 현장이 통제됨.
-오후 12시 30분: LAPD 이동식 지휘차량, 수사팀, 무력수사부(FID) 등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 양박사 자택 포함한 블록 전체에 폴리스 라인이 쳐짐. 경관들은 양박사 부부에게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함. 내부 상황 설명을 해주지 않음.
-오후 12시 41분: 앰블런스 도착. 구급대원 3명이 현장에 들어감.
-오후 1시 7분: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나옴.
-오후 1시 30분-2시: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 사건 발생 두 시간 가까이 돼서야 양박사 부부에게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림. 여전히 양박사 부부는 집으로 접근이 불가함.
-오후 2시 57분: LAPD 공보실, X(구 트위터)를 통해 “칼로 무장한 40대 용의 남성, 경찰에 피격”이라고 발표.
-오후 3시: FID, 양박사 부부 올림픽 경찰서로 가서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 양박사 부부는 검시국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그때 다시 현장에 올 수 있다며 함께 경찰서로 향함.
-오후 4시: 현장에 검시국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갔지만 이미 아들의 시신이 수습된 후였음.
-오후 8시: 양박사 부부는 집으로 돌아감. 장수아 기자

▶1면 ‘경찰 총격’에서 이어집니다

이어 “아들의 병이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아들을 병원에 보낸 적은 지난 10년 동안 2-3번 정도뿐”이라며 “아무리 패닉인 상황이라도 부모한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양박사는 “평생을 본인의 아픔과 싸우다 나이 40에 접어들며 이제 좀 서로에게 평화가 찾아오려나 했는데 이렇게 갈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어릴 적 길거리에 새가 죽으면 눈물을 터트릴 만큼 여렸던 아이다. 쾌활하고 착한 심성에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는 것도 싫어했다”고 아들을 기억했다.

오랜 세월 교육계에 몸담았던 양박사는 “(아들 이야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주위에 알리진 않았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어 열심히 일했고, 내 아이에게 못다 해준 것 전해주는 마음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용이를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보면 용이가 우리를 키운 것 같다. 이제 용이가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납득할 수 없는 일”... 철저한 수사 요구

한인사회 등 각계 반응 LA한인회 유감 표명 성명

지난 2일 경찰 총격에 한인 남성이 사망한 것(본지 5월 3일자 A-1면)과 관련해 한인 사회 안팎으로 유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 3일 해당 총격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한인회 측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현장 출동한 경관이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총격을 가해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상황과 보디캠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LA경찰국(LAPD) 측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인회 측은 피해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LAPD는 언론에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 이외에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3일 LA시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계 유산의 달 기념행사에서 도미니크 최 LAPD 임시국장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최 국장은 거절했다.
LA시장실도 이번 사건 정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캐런 베스 LA시장실 김지은 한인 공보담당은 “베스 시장도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2일 오후에 소식을

접하고 최 국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존 이 시의원(12지구)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현장에 나간 정신과 지원 인력과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작전을 진행했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 국장과 얘기를 나눈 뒤 사건 관련 보고서를 요청했으며 이후에도 수시로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경관들의 대응이 상당히 급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벤 박 한인법집행기관연합회(KALEO) 회장은 “요청을 받고 경관이 7명이나 출동했다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위험하고 급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관들은 비살상무기를 사용해 위협을 최대한 낮추는 훈련을 받지만 막상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가족과 동료 경관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전생 기억하는 아이 많다”

짐 터커(사진) 버지니아대학(UVA) 교수가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매우 많으며 그 완전한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은 자신들이 전혀 가보지 못한 곳을 묘사하고 자신들의 언어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언어구사력으로 보이기도 한다”면서 “이들은 악몽과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전생의 기억을 끄집어낸다”고 밝혔다.

터커 교수는 의대를 졸업하고 어린이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개원해 일하다가 이안 스티븐슨 버지니아 대학 교수의 전생 연구 작업에 매료돼 그의 연구실에 취업했다. 스티븐슨 교수는 1960년대부터 2500여건의 전생 관련 인터뷰를 통해 학문적 업적을 쌓다가 2007년 사망했다.

이들은 대체로 다른 아이들에 비해 언어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남들보다 훨씬 일찍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7-8세가 지나면서 급작스럽게 전생에 대한 기억을 잃어가는 특성을 보였다.

터커 교수는 스티븐슨 교수의 학문을 계승 전생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성과를 내오고 있다. 그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 150여명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그 실체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터커 교수의 연구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전생 관련 인터뷰를 진행한 아이 중 상당수가 전생을 믿는 아메리칸 원주민 등 전통사회를 배경

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터커 교수는 대부분의 부모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억누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생을 기억하고 되살리려고 하는 아이 비율은 훨씬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토바 클레인 버나드 칼리지 교수도 터커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클레인 교수는 “2-3세 아이들은 환상이 다분한 놀이를 하지만, 이 놀이 속에 나오는 발언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전생 속의 기억과 속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들 발언 속에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다”, “내 아이들은 어디있지?” 등이 가장 흔한 전생 기억 중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환상성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스타벅스 반려견 전용 메뉴 인기

메뉴판에 없어 별도 주문해야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 가구’가 늘면서 일부 레스토랑들이 반려동물 전용 메뉴를 내놓고 있다.

스타벅스에는 반려견을 위한 ‘퍼푸치노(puppy+cappuccino)’가 있다. 메뉴판에는 없지만 퍼푸치노를 주문하면 컵에 휘핑크림을 가득 채워준다.

스타벅스는 컵에 휘핑크림을 가득 채운 ‘퍼푸치노’를 무료로 제공한다. 정하은 기자

가격은 무료로 컵 사이즈는 매장마다 다르다. 일부 매장의 경우, 휘핑크림 위에 바닐라 시럽을 뿌려서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퍼푸치노는 우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는 반려동물이 과하게 섭취하면 설사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패스트푸드 체인점 데어리퀸, 소닉, 칩필레도 반려견용 시크릿 메뉴인 ‘펍컵(pup cup)’이 있다. 주문하면 바닐라 소프트아이스크림 위에 반려견용 비스킷을 얹어서 준다.

치킨 체인점 레이징 케인스는 베이컨 스트립, 밀크본, 치킨너겟 등 매장마다 다른 간식이 비치돼 있다. 일부 레스토랑은 반려견용 유료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웨이백에서는 5개의 반려견용 비스킷 ‘백오븐즈(8.49달러)’와 강아지용 비스킷에 피넛버터, 바닐라 커스터드가 올라간 ‘푸치니(4.79달러)’를 판매한다.

인앤아웃은 메뉴판에는 없는 ‘펍패티’ 메뉴가 있다. 펍패티는 마늘, 양파나 기타 조미료를 넣지 않은 쇠고기 패티로 가격은 1달러다. 대부분의 메뉴는 메뉴판에 없기 때문에 직원에게 직접 주문해야 한다. 정하은 기자



세계한인차세대 대회 폐막 재외동포청이 주최한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나흘간 일정을 마치고 3일 폐막했다. 이번 대회에는 19개국 차세대 리더 68명이 참가해 모국을 체험하고 소통했다. 이날 참가자 중 남가주 한인번화사협회(KABA) 에린 조(한국명 조애린) 전 회장은 각국에서 온 한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미국에서도 한국 문화를 더 알고 다른 한인들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4월 고용, 전망치 하회... 실업률 3.9%

과열 노동시장 냉각 시사

4월 신규 일자리 증가 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4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7만5000건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24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4월 실업률은 3.9%로, 시장 예상(3.8%)보다 조금 높았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2%로, 예상(0.3%)에 못 미쳤다. 1년 전과 비교한 평균임금 상승률은 3.9%로 2021년 6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도는 고용

증가세와 임금 상승률은 둔화는 노동 시장이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 초과수요에 기반한 뜨거운 고용시장은 그동안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제품 과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해왔다.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약화를 시사하는 4월 고용보고서를 두고 월가는 경제의 연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골디락스’(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보고서라며 환호했다. 김은빈 기자

중국 흑연 쓴 전기차도 IRA 보조금 지원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체엔 호재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배터리를 쓰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당분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산 흑연을 단기간 내 대체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을 미 정부에 호소해온 한국 전기차 제조사와 배터리 업체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연방 재무부는 3일 IRA 세액공제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중국산 흑연 금지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이다. 한국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중국 수입 의존도가 약 90%에 달한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규정을 준수하면 각각 3750달러씩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중국 등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부품이나 핵심광물을 조달한 경우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부품은 올해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흑연·리튬·니켈 등 핵심광

물에 대해서는 2025년 1월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흑연의 경우 중국이 채굴-제련 시장에서 70%가량을 장악한 상태여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를 찾기 어려운 만큼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 정부와 전기차 업계의 요구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산 흑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거의 없을 것이며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SC MEDICAL HEALTH CARE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정점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진료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원

한의원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하마스, 이집트·카타르 휴전안 수용

“이스라엘은 동의 안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관리는 하마스 측에서 받아들여기로 한 휴전안을 이스라엘이 수용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마스 측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최고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에 정치국장이 카타르 총리와 이집트 정보국장에게 휴전 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마스 관리인 타헤르 알-노노는 수용하기로 한 휴전안에 휴전, 재건, 피란민의 거주지 복귀, 인질 및 수감자 교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하마스 협상단이 7일 이집트 카이로에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마스의 가자지구 부지도자인 칼릴 알-하이야는 알자지라 방송에 휴전은 42일씩 3단계로 진행되며, 2단계 휴전 중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전면 철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알-하이야는 1단계 휴전 중에는 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검은 연기와 불꽃이 치솟고 있다. [로이터]

스라엘 민간인 석방이 이뤄지며, 마지막 3단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죄수 교환이 실행된다고 부연했다.

하마스의 휴전 제안 수용 발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을 위한 수순으로 민간인 소개령을 내린 가운데 나왔다.

하마스 측의 발표 직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우려해온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성을 지르고 허공에 총을 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완화된 이집트 제안을 수용했다”며 “그 제안에는 이스라엘이 동의하지 않는 광범위한 결론이 담겨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리는 또 “하마스의 오늘 발표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계략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재판증인 비방금지’ 또 위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함구령을 또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담당 판사는 비방이 지속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금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6일 뉴욕타임스(NYT) 등 매체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추가로 위반했다며 그에게 벌금 1천달러를 부과했다.

지난달 2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 배심원단을 향해 “대부분 민주당원”이라며 “매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머천 판사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



스(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9천달러를 부과

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함구령 위반이 지속될 경우 필요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수도 있다고 1차 경고를 한 바 있다.

머천 판사는 이날 벌금 부과를 결정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추가적인 함구령 위반이 있을 경우 다음 제재는 벌금이 아닌 구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심원단 심리 3주 차에 접어든 6일 법정에선 트럼프를 그를 재무담당 관리자였던 제프리 맥코니가 증인으로 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언에게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 관해 증언했다.

트럼프수사 전특검, 상사와의 연애에 “극히 미국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을 수사한 뒤 상사인 검사장과 불륜 의혹이 드러나 사임한 전직 특별검사가 자신과 상사의 관계에 대해 “극히 미국적인 일”(as American as apple pie)이라고 말했다.

네이션 웨이드 전 특검은 6일 보도된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장 로맨스는 극히 미국적인 일”이라며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자신과 검사장)에게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웨이드 전 특검은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사적인 문제가 이 중요한 기소의 초점이 된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윌리스 검사장(왼쪽)과 웨이드 전 특검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검사장의 사적인 관계가 트럼프 사건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나는 내 개인사가 그 사건의 진정한 문제를 흐리기 시작한 것이 싫다”고 부연했다.

웨이드 전 특검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에 의해 2021

년 11월 특검으로 임명돼 작년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부인과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시기에 윌리스 검사장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자 지난 3월 특검직에서 물러났다.

이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가 윌리스 검사장이 트럼프 사건에서 손을 떼든지, 아니면 사건 공판이 진행되기 전에 웨이드 특검을 해임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사임한 것이었다.

당시 판사는 “실질적인 이해 충돌을 입증할 혐의와 증거가 법률적으로 불충분하다”면서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러 대외정보국 “미, 젤렌스키 후임자 물색”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은 미국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사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후임자를 찾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주장했다.

SVR은 이날 성명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면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며 미국이 대체자 물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를 위해 페트로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 발레리 잘루즈니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현 주영국 대사) 등과 접촉하고 있다고 SVR은 밝혔다.

SVR의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가 어떤 후보와 대화할 의향이 있



느냐는 물음에 “아직 이야기하기 이른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일 젤렌스키 대통령을 수배명단에 올린 러시아 내무부는 이날 파울로 클리킨 전 외무장관, 블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전 총리, 올렉시 다닐로우 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아르센 아바코우 전 내무장관 등 우크라이나의 전직 고위 관리도 수배명단에 포함했다.

포로셴코 전 대통령과 올렉산드르 파블리우코 현 지상군 사령관, 키릴로 부다노우 국방부 정보총국장, 미하일로 코발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최근 러시아 수배명단에 오른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다. 내무부는 이들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바이든보다 고령’ 진보 상징 샌더스, 상원의원 4선 도전

미국 진보정치 상징적 인물로 올해 82세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사진)이 11월 4선에 도전할 것임을 선언했다.

무소속인 샌더스 의원은 6일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늘 나는 또 한 차례의 임기에 도전할 의지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



회 위원장 등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을 열거한 뒤 “내가 재선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버몬트 주민들에게 필요한 종류의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어 강력한 입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월 5일 치러질 대선과 의회 선거에 대해 “우리들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선거를 통해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기능할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 정부로 옮겨갈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며 자신은 전례 없는 소득과 부의 불균형 수준 속에 모두를 위한 정부와, 부유한 선거 자금

기부자들이 장악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샌더스 의원은 또 미국내 여러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대인인 그는 이스라엘이 작년 10월 하마스에 의한 ‘끔찍한’ 공격과 인질 납치에 맞서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지만 “전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맞서 전쟁을 벌일 권리는 없음에도, 현재 그

런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1941년생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1942년생·81세)보다 한 살 많은 샌더스 의원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연방 하원의원을 역임한 뒤 2007년부터 연방 상원의원(임기 6년)으로 재임중이다.

미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간 불평등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바 있다.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RN 간호사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6/3 - 6/7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Richmond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페어팩스 한인교회

헌당예배

페어팩스한인교회는
 “축복의 근원, 섬기는 공동체, 행복한 가정”이란 비전을 가지고
 지난 32년간 양광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많은 역경과 풍설을 극복하고, 2023년 10월 하나님의 은혜로
 모기지를 완전히 페이오프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할 수 있게 되어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헌당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쁨의 헌당 예배에 워싱턴 지역의 여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4년 5월 19일(주일) 오후 4시

장소 페어팩스 한인교회



양광호 목사



최일승 목사



<교회소개>

페어팩스한인교회는(Fairfax Korean Church) 버지니아 Fairfax County의 중심부에 위치한 독립한인장로교회입니다.
 신령한 말씀과 뜨거운 기도, 아름다운 찬양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구원 받은 자의 경건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입니다.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인 본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처음 오신 한분 한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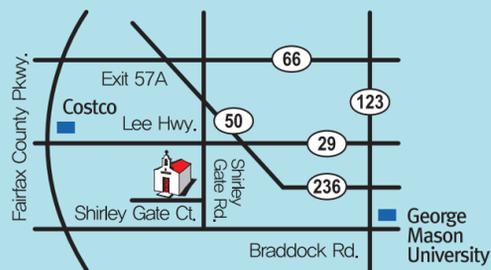
주일 1부예배	주일	오전 9시
주일 2부예배	주일	오전 11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수요찬양예배	수요일	저녁 8시
금요기도회	금요일(격주)	저녁 9시

페어팩스 한인교회

• 동사목사: 양광호, 최일승 • 협동목사: 박승신 • EM Pastor: Kristy Baik

11400 Shirley Gate Ct, Fairfax, VA 22030 703-352-0855, 703-691-4309

www.fairfaxchurch.org



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 땀, 검색사업 분할 가능성

(미국)

90.91%로 하락... 계속 내리막길
MS '빙'은 3.64%로 소폭 상승
AI·검색 결합한 경쟁자 속속 등장

‘검색의 제약’ 구글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검색엔진 시장점유율은 내리막길을 걷는 데다 인공지능(AI) 기술과 검색 기술을 결합한 경쟁자까지 등장했다. 이에 더해 1심 선고를 앞둔 미국 정부와의 검색엔진 시장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구글이 공들이는 AI 사업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글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최고경영자(CEO)를 겸직 중인 손다르 피차이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6일 웹 트래픽 분석 사이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달 구글의 글로벌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90.91%로 나타났다. 2018년 8월(90.91%) 이후 약 5년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엔진 Bing 점유율은 3.18%에서 3.64%로 0.46%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야후는 2.46%에서 1.13%로 1.33%포인트 하락했다. 네이버의 검색엔진 점유율은 0.15%에서 0.31%로 상승했다. 구글 검색엔진의 글로벌 점유율은 여전히 90%대로 압도적이지만, 앞으로의 경쟁 환경이 녹록치 않다. AI와 검색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를 앞세워 검색 엔진 시장의 점유율을 탈환하려는 경쟁자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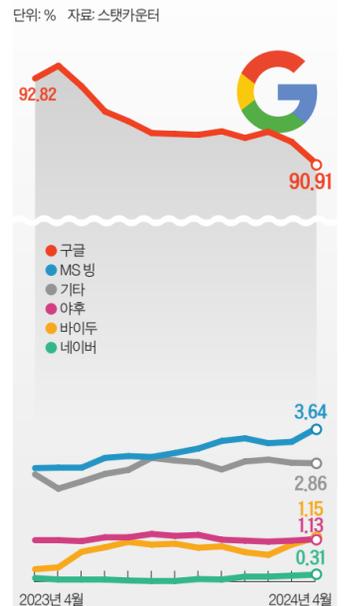
이다.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는 업체는 2022년 설립된 미국의 AI 검색 스타트업 ‘피플렉시티 AI’다. 이용자의 질문에 알맞은 검색 결과를 조합해 요약해 주고 추가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 주는 AI 기술을 개발해 인지도를 얻고 있다. 지난 1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을 포함한 투자자로부터 7360만 달러(약 1002억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받았고, 3개월 후인 지난달에는 6270만 달러(약 853억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며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 외에

오픈AI와 MS 등 주요 빅테크도 AI와 검색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며 구글을 위협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지난 2월 오픈AI가 MS 검색엔진 Bing과 AI 기술을 결합한 검색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MS는 지난해 1월 오픈AI에 100억 달러(약 13조6200억원)를 투자했고,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대체는 “오픈AI가 검색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면 이용자와 대화하는 AI 기술을 놓고 싸우는 구글과의 경쟁 구도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

했다. 인터넷 검색 서비스로 얻는 광고 수익은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의 핵심 매출 톱로다. 검색 서비스의 경쟁력이 약화할 경우 기업 전체의 매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구글의 검색·광고 부문 매출은 모회사 알파벳 전체 매출(3074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57%(1750억 달러, 한화 238조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기준 국내 검색 시장의 57%를 차지한 네이버(인터넷 트랜드 집계)도 지난해 전체 매출(9조 6700억원) 중 최대 비중인 37%가 검색광고 서비스를 포함한 ‘서치 플랫폼’ 부문(3조5980억원)에서 나왔다.

실상가상으로 구글은 미국 정부와 검색엔진 서비스를 둘러싼 반독점 소송 선고도 앞두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최종변론을 마쳤고, 늦어도 수개월 안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최악의 경우 검색 사업을 분할하거나 일부 서비스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업계는 전망한다. 경쟁사와의 AI 검색 시장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와의 반독점 소송까지 패소할 경우 AI 서비스 등 미래 핵심 사업이 줄줄이 매출 감소의 악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AI 기술 발전으로 기존 검색엔진 시장 전체가 축소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지난 2월 글로벌 IT 컨설팅

구글, 세계 검색시장 점유율 급락



업체 가트너는 2026년까지 생성AI 기술 등장에 따라 온라인 검색엔진 사용 횟수가 현재 수준 대비 25%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앨런 앤턴 가트너 부사장은 “생성AI 솔루션은 점진적 검색엔진의 대체제가 되고 있다”며 “생성AI 기술이 확산할수록 기업들이 (기존 검색엔진 대신) 또 다른 마케팅 통로 전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윤상근 기자**

“반도체 시장 롤러코스터 계속 수요·공급 조절위해 라인 늘려야”

최태원 상의 회장 기자간담회
“나도 기업할거야, 사람들 나서게
창업 도전할 환경 만들고 싶어”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플레이스 남대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 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에 대한, 경제계에 대한 약간 반기업 정서가 있는데 완화·개선하고 싶다”며 “많은 사람이 ‘나도 기업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정말 신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플레이스 남대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재선임된 대한상의 회장 두 번째 임기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그는 “(기업들로서) 크게 달라진 것 없다”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달라지지 않았고, 다만 저성장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해왔던 기조대로 계속 가도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의 방법론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었던 만큼 대안이 무엇인지 (대한상의가) 더 잘 내놓고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론을 좀 더 시도해야 한다”고 설

명했다.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미국) 의회가 따라가지 않는 이상 미국과 한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변화는 쉽지 않다”며 “크게 우려할 것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SK 회장인 최 회장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최 회장은 “오랫동안 본 사람인데, 제품 빨리 나오게끔 우리 연구개발(R&D)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인공지능(AI) 반도체용 메모리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납품하고 있다. 올 1분기 ‘깜짝 반등’에 성공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분기 매출 12조4296억원, 영업이익 2조886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올렸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도 매출 23조1400

억원, 영업이익 1조9100억원으로 5분기만에 흑자 전환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실적과 업황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커지고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존재한다”며 “지난 몇 년을 보면 코로나19로 수요가 확 늘었다가 소비가 확 둔화하며 (반도체가)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롤러코스터는 앞으로 계속되리라 생각하고 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어려워진 만큼 수요를 충족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라인을 더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적한 배터리 시장 융합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퇴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배터리 상황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영향”이라며 “배터리·소재 등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전기차가 없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배터리 사업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MERCY CHIROPRACTIC

멀시척추신경

교통사고 치료 전문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24년 임상경험의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관절 클리닉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손발 통증 및 저림
- ▷ 좌골 신경통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n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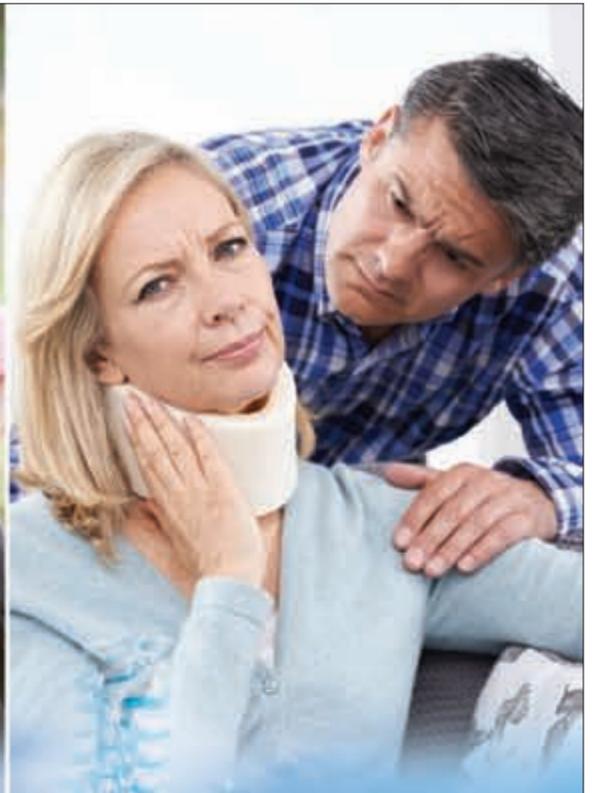
www.jungmercyclinic.com
email: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김진표 “편파 국회의장은 꼭두각시”… 친정 민주당 작심비판

의장 후보 경선 열흘 앞두고 쓴소리 “중립 불필요? 공부하면 부끄러울 것”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들이 연일 당성(黨性)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편파된 역할을 하는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방송된 MBN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장 후보들이 국회의장 역할에 대해 중립적인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와 정치 사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한 사람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김 의장은 “2002년 정치개혁 때 ‘적어도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국회의장의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만약 한쪽 당적으로 계속 편파된 의장의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7일부터 이틀 동안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을 받아 오는 16일 당선인 총회에서 후보를 뽑는다.

현재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 5선 우원식·정성호 의원의 4파전 속에 ‘중립 포기’ 발언이 잇따랐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이) 협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MBC 라디오)고 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그에 앞서 2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장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인기 중 비교적 여야 합의 원칙을 중시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를 중시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4일 로스앤젤레스(LA)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

는 모습에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 박병석(전반기 국회의장)·김진표 똑같은 놈들, 진짜 개××

들”(박지원 당선인)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요새 너무 성

질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 정치나 진영 정치의 영향으로 그냥 ‘묻지마 공격’이 습관화돼서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가장 괴로웠을 때가 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협의 없이 일방 처리를 주장하고, 여당은 국회에서 협의할 생각은 안 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 대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의 정치를 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의 정치를 해달라”며 “상대방을 적이 아닌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걸로 기본 인식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대화와 타협 안 하는 그런 정치가 한국을 망들게 한다”는 조언도 했다.

정용환 기자

9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 1시간 동안 자유 질의응답한다

회견 전 영상 통해 국정계획 발표 용산은 민정수석실 감찰조직 고심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잔혹사’를 그 누구보다 잘 안다. 검사 시절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불법 사찰)과 문재인 정부 조국 전 민정수석(감찰 무마) 수사를 지휘해 유죄판결을 받아낸 이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승리 직후 당선인 시절 첫 다짐으로 “사직동반은 있을 수 없다”며 민정수석 폐지를 선언한 것도 이때의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전언이다.

총선 패배 뒤 180도 달라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7일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하고 기획통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수석에 임명할 계획이다. ‘백성의 마음을 살핀다’는 민정(民情)의 뜻대로 진짜 민심을 청취할 민정수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수석실에 민정비서관을 새로 두고, 기존의 공직기강·법률비서관실은 하나로 묶는 방안이 거론된다. 과거 검경 수사 관련 업무를 맡았던 반부패비서관실은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대통령실에선 “민정수석실 산하에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심 청취와 감찰 기능은 병행해 가야 하는 측면



6일 브리핑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나오고 있는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있다”고 했다. 정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 업무를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대통령실 직원과 부처 최고위직으로 조사 대상이 한정돼 있다. 대통령실은 민정비서관실을 키워 감찰 기능을 더하거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찰팀이 신설될 경우 문재인 정부 때 논란이 됐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당시 “조국 수석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부패 의혹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폭로한 이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에서 일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었다. 김 전 구청장은 특감

반의 민간인 사찰 논란도 제기했었다.

한편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기초와 정책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3년간의 국정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후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1시간가량 자유 주제로 기자들과 질의응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너무 빠른 질문보다는 정말 국민이 궁금해 할 만한 질문으로 준비하자’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박대민 기자

사흘간 제주 980mm… 물폭탄 된 남부지방 봄비

어린이날 연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1000mm에 육박하는 봄비가 쏟아지며,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비는 어버이날인 8일에야 꺾 전망이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전남 광양시(198.6mm)와 진도군(112.8mm)은 5월 일강수량 기록을 다시 썼고, 전남 완도(139.9mm)·순천(154.1mm)과 경남 남해(242.1mm)도 5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제주도 삼각봉과 진달래밭 관측소는 4~6일 각각 980mm와 962.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례적인 봄철 폭우에 피해도 속출했다. 5일 경남 고성군 대가면에서는 한 70대 주민이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렸다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에서도 17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119에 접수

됐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제주에선 강풍까지 불며 이날 하루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5월 초에 장마철처럼 집중호우가 쏟아진 건, 남풍을 타고 비의 ‘연료’가 되는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됐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서해상에서 접근한 저기압과 동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 사이에 끼면서, 제주-남해안을 관통하는 ‘수증기 고속도로’가 뚫린 것이다.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에도 중국 중부지방에서 접근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남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당시 5월 전국 강수량은 191.3mm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이후 1년 만에 ‘5월 폭우’가 반복된 셈이다.

이번 비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7일까지, 강원 영동 남부와 남부 지방은 8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천권필 기자, 고성=안대훈 기자



전날(6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경남 합천군 대양면의 한 마을이 침수되자 6일 소방대원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집들을 둘러보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까지 경남의 누적 강수량은 평균 108.3mm라고 밝혔다. (사진 경남소방본부)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MD·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이제야... 유럽 직접 가보고 연금개혁 결론 내겠다는 특위

임기 23일 남기고 영국·스웨덴행 “해외갈 거면 출범때 갔어야” 비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을 방문한다. 영국 연금보장사회부를 비롯한 연금 관련 부처의 장을 만난다고 한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이 간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복지부 과장 등이 동행한다.

특위가 내세운 방문 목표는 연금개혁 합의안 마련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합의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외유성 출장이라는)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유럽에서 아침·점심·저녁을 함께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500인 시민대표단은 1~4차 토론 끝에 56%가 보험료율을 9%→13%로, 소득 대체율을 40%→50%로 올리는 ‘소득보

장안’을 택했다. 시민대표단의 속의 결과가 나온 후 여야는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환영하는 반면, 여당은 반대한다.

연금특위는 2022년 7월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 2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공론화 토론으로 넘겨 20억원 넘게 예산을 썼고, 그 후에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해외로 간다고 하니 국민 눈에 ‘외유성 출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국내에서 5박 6일 끝장토론하면 안 되나.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가 23일밖에

남지 않았다. 해외 출장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온다고 해도 원내 지도부에 보고한 뒤 최종 협상까지 마쳐야 한다. 본회의 추가 개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과장을 앞둔 마당에 영국·스웨덴에서 연금개혁 과외를 받는다는 한결 합의안의 일부에도 넣을 수 있을까. 윤석명(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해외로 갈 것이라면 특위가 출범할 때 갔어야 한다”면서 “유럽 사례는 전문가들이 이미 정리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유럽의 연금 개혁 보고서는 발에 차릴 정도다.

이런 굵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외로 간다면 반드시 합의안을 들고 와야 한다. 주 위원장은 “그랜(빈손으로 올 때) 다 뒤집어써야지. 그걸 감수하고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니라 정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합의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론화 위원회 연금 개혁안이 무엇이 잘되었다고 포상휴가를 가느냐.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문상혁 기자

의정대화 회의록 미작성 논란... “의협과 합의된 것” “정부, 직무유기”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관련 회의록이 의·정 갈등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 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회의록의 존재 및 제출 여부 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주요 회의체 중 하나인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정책 심의기구다. 법정 위원회인 데다,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양동호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왼쪽 셋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협회(의협)와 증원 문제 등을 28차례 논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 협의해

래 전국광역시의도사회장협의회장도 “합의한 사항을 정리하고 양측 동의를 받아 간사가 발표했다”며 “그게 공식적인 자료”라고 말했다.

대학별 정원 배분 규모를 심의했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회의록 제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제10차 성명서를 통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건) 정원 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의사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회의록

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의료계는 형사 고발에도 나섰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을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서는 2000명을 결정할 최초의 회의 자료를 대학별 정원 규모를 세부적으로 결정할 배정위 자료, 현장실사 자료 등을 내라고 했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회의록은 참석자 명단과 안건, 발언 내용, 결의 내용, 일시와 장소 등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런 자료가 아니라면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수연 기자

의대생 집단유급 데드라인 D-7... 교육부 “대학들, 학년제 등 검토해달라”

5월에도 의대생의 수업 복귀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교육부가 대학들과 이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각 대학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조치계획’ 공문을 보내 “오는 10일까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사운영 계획 및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집단 유급의 ‘데드라인’으로 여긴 5월 중순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수도권 사립대 교무처장은 “지난 주 교육부 차관 주재로 각 대학 의대 학장과 교무처장이 비대면 회의를 했다”며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각 대학이 학칙을 바꾸거나 학사일정

을 조정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공문과 함께 보낸 서식에는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등을 적게 돼 있다. 탄력적 학사운영의 예시로는 온라인·원격 수업, 유연한 출결 관리뿐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단위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하는 것 등이 있다. 학년제의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1년 단위 내에서 30주 이상 채우면 된다. 따라서 내년 2월 말 기준으로 여름·겨울방학을 모두 반납하면 8월 초까지 개강을 미룰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집단행동으로 수업에 빠진 시기를 출석일수에서 빼거나 유급 결정 시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것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의료 공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며 서울 동대문구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경희대병원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이 내일부터 급여 지급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의 모습. [연합뉴스]

도 대책 중 하나로 제안했다. 그 밖에 학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 상황 점검 등 각 대학에 대규모 유급 발생 가능성, 대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교육

부 측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미 내년도(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발표됐고, 전국 40개 의대 중 35개교가 개강했다. 하지만 개강한 학교 대다수도 ‘개집휴업’ 상태다. 전북대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얼마나 듣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는 13일 개강하는 대학 중 일부는 개강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학사운영의 탄력적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 한 사립대 총장은 “다른 단과대 학생들은 ‘의대생만 편의를 봐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학사운영을 의대생에게만 맞춰줄 경우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중증 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플랜
-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보호기간 5년 지나면 도움 끊겨... 명절·성탄절 전후 부고 잦다

세상서 소외된 자립청년(상)

열여덟살에 홀로 서기 나선 예나
마지막 들은곡 '혼자라고 생각말기'

2000만원 지원금 들고 사회 첫발
의지할 곳 찾았고 사기 당하기도

지난 2월 22일 보육원을 떠난 지 8년 된 자립준비청년 유예나(27·가명)씨가 충북 제천에서 숨졌다. 유씨는 숨지기 직전 'Don't think you're alone'(혼자라고 생각말기-김보경)를 들었다.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이기기. 너무 힘들 땀 너무 지칠 땀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노래 가사와는 달리 마지막 순간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유씨 휴대전화 재생 목록엔 '눈사태 난 듯 무너진 맘 추스려 보니 다시 불 꺼진 밤... 너무 좋다. 손을 모아 입김 불어봐도. 마음이 얼어붙어서'란 내용이 담긴 '춥다(에픽하이)'도 있었다. 유씨가 함께 생활하던 조모(29·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난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마워, 잘 살아"라고 한 게 유언이었다.

유씨는 보육원 시절 친구들과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있었다.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다른 친구들은 고아원 창립자 성을 따라 이름을 지었지만 유씨는 아버지의 성을 따랐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2015년엔 아버지와 연락도 닿았다. 그때부터 아버지 유씨는 매달 50만원씩 용돈도 보내줬다. 신인성 고아원의 연대 정책국장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보육원 안에서 일종의 권력라고

같다"며 "부모가 없다는 게 가장 서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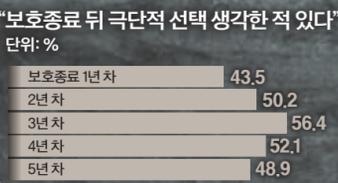
유씨는 하지만 3년 전인 2021년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을 입양한 양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우울해했다고 한다. 유씨가 생전에 종종 낙서했던 공책에는 "Home is wherever I'm with you(당신과 함께 있는 곳이 어디든 집)"라는 문구가 씌



어 있었다. 부모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워 보육원 등 복지시설에 맡겨진 뒤 만 18세가 되어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은 2023년 기준 1635명. 정부는 이들에게 1회 정착지원금 1000만~2000만원과 5년간은 자립수당(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정착지원금과 후원금 등 목돈을 갖고 시설을 떠난 18세 청년들은 전세·중고 거래 등 각종 사기로 등을 치는 하이어나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일도 잦다. 대부분 지인이나 가족 등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범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이래 홀로 서기를 준비하던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명을 포함해 자립준비청년 32명이 사망했다. 유씨의 죽음은 자립수당 제도 도입 전인 2017년 보호가 종료돼 관리 대상도 아니어서 통계에도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시스템상 집계 가능한 '자립수당 받는 기간(보호 종료 5년 이내) 중 극단 선택'만 집계하고 관리하고 있어서다. 유씨 외에도 2021년과 2023년 같은 보육원 출신 각각 만 24세와 30세인 청년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통계엔 기록되지 않았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2016년 보육원에서 나올 때 유씨에겐 디딤돌씨앗 통장에 든 2000만원(당시 정착지원금 500만원과 후원금 등을 합한 돈)이 전부였다. 하지만 유씨는 고깃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하며 공부해 2018년 2월 강원도의 한 전문대 카지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인근 리조트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대 근무를 하며 5년간 성실히 일했다. 지난해 8월부터 조씨와 함께 치킨집 사업을 시작했고 장사가 잘돼 확장·이전 계획도 세웠다. 직접 튀긴 닭 10마리를 들고 보육원을 찾아 교사에게 "그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했다. 갑작스러운 유씨의 죽음에 보육원 동생 백씨는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시설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기댈 수 있는 주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홀로 서야 했지만 사회는 무관심했다"고 말했다.

이 끝난 친구들의 부고가 부쩍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의 관심이 줄고 지원이 끊겨 혼자 남겨지기 때문이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커뮤니티(SOL)를 운영하는 윤도현씨는 "지난 2월에만 부고를 두 번이나 접했다. 특히 명절, 크리스마스 전후에 사망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고 전했다. 조윤환 고아원의연대 회장은 "같은 보육원 출신 80명 중 성인이 된 이후 20명이 사망한 경우도 있다"며 "알려지지 않은 죽음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정세희·김서원·박종서 기자

보호종료 후 취업 지원제도 있지만...수급자 탈락 위험 커 꺼려

심리치료 이용률도 0.89%뿐
자립청년 인증해야 해 거부감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최모(27)씨는 3년 넘게 도전했던 취업을 최근 포기했다. 지방 4년제 대학을 나와 기술직을 지망하며 토익시험과 적성검사 준비도 계속했지만 면접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다. 최씨는 병역 면제를 받은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시설퇴소자"라고

설명했지만 면접관이 잘 알아듣지 못해 결국 "고아"라고 말해야 했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이모(26)씨도 "고아원을 나와 5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여전히) 방향 중인 게 한심스럽다. 답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대부분은 보호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제한돼 있다. 또 보호 종료 기간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취업(진로)·정서 지원 프로그램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이용률이 0.89% 수준(지난해 6월 말 기준)에 그쳤다. 홍보 미흡도 있지만 자립준비청년 인증 과정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취업제도 중

'일경험' 프로젝트의 경우 3개월간 소득이 잡히면 이후 6개월간은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지원 자체를 꺼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자립준비청년 비율은 5년 차 때 48.9%였다. 이상정 아동가족정책연구소장은 "그들이 진정 필요할 때 진로 교육,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d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세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철펠리 지역]

새로운 정치는 왜 출현하지 못하는가?

총선이 끝났다. 선거 결과에 따른 정당과 정치인들의 행보를 살펴보고 민심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을 평가하는 작업이 중요하지만, 선거가 진행될 때만큼 재미있지는 않다. 매일 보던 뉴스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좀 시시해진다. 그럼에도 2024년 총선 결과는 이전 총선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시사점들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을 흔든 역대 선거

1980년대까지의 선거 이슈는 강력한 정부 여당에 대해 야당이 어느 정도 득표하는가에 쏠려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1956년 대선과 1958년 총선, 1971년 대선과 총선, 1978년 총선, 1985년 총선, 그리고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은 한국 사회 전체를 선거 열풍으로 몰아넣었다. 관권 개입 상황에서도 야당이 약진했고, 선거 결과는 한국 사회에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대부분의 총선에서 여당의 당선자 수가 야당보다 많았지만, 때로는 야당의 득표율 약진이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었다. 몇몇 총선의 경우 야당이 득표율에서 여당을 앞서기도 했다. 그리고 야당이 약진한 선거 직후에 정치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1958년 야당의 약진은 여당 내 온건파와 야당 내 일부 그룹이 비밀리에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1971년의 대선과 총선은 1971년 비상사태 선포와 1972년 유신선언에 원인을 제공했다. 1978년 총선은 1979년 정치적 소용돌이의 시작점이 되었고, 1985년 총선은 1987년 6월항쟁과 개헌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1988년 총선의 결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의 상황은 1990년 민주자유당의 탄생과 보수-진보의 정치 구도가 탄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변화한 시대적 상황

이번 총선은 어떤가? 1990년대까지의 총선과 대선에서는 민주화 이슈와 함께 경제개발 시대의 유산이었던 지방주의가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개발독재 시대의 유산으로부터 한국 정치가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를 외쳤지만, 그 유산은 200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

어쩌면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이 개발독재의 정치적 유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는지도 모른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진보의 표밭이 되지 않았다. 이는 과거와 다른 한국 사회의 정치적 지형을 보여주었고, 개발시대 이후 대도시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유권자가 되면서 여촌야도(여당은 농촌, 야당은 도시)의 공식도 깨질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제조업 중심의 근대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적 흐름이 변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 개발독재 시대의 이슈에서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혁신의 여부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시대적 변화는 새로운 정치 구도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이미 30대에



역대 선거에서 야당 약진하면 한국 사회에 큰 변화 나타나기도 지난 대선과 총선, 개발시대서 벗어난 새 정치구도 출현의 기회 민주화 이후 40년 되어가지만 개도국 시절의 정치 행태는 여전히 수많은 선거 치렀지만 이렇다 할 공약·정책·비전은 기억에 없어

접어들었기에, 2024년이라는 시점에서 새로운 정치 구도가 출현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70년 전 한국 정치에 대한 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1950년대 중반 미 대사관의 한국 정치에 대한 평가가 다시금 떠오른다(1956년 2월 13일 자 전문). 이미 70여년 전의 일이다. 이 문서는 1956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자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1954년 사사오입 개헌 이후 1955년 창당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과거의 한국민주당 계열과 함께 원내 자유당, 흥사단 계열, 가톨릭 계열 등이 민주당으로 통합된 직후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그 자체로서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1956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 신익희의 인기는 대단했다. 한강 백사장에서 선거유세에 수십만명이 운집했다.

이러한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 대사관의 문서는 민주당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한국 정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점이다. 이

문서에 나타난 한국 정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외부의 시선으로 본 한국 정치의 특징

- ①파벌주의: 내 파가 아니면 다른 파. ②실용주의: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인가. ③허무주의: 모든 정부와 관련된 것은 나쁘다. ④개인주의: 누구도 나에게 해 줄 것이 없다. ⑤정책보다는 개인적 인지도자들에 대한 사적인 충성심. ⑥'거물'이 되고자 하는 희망. ⑦한국의 통일에 대한 열망. ⑧민족주의, 또는 더 정확하게 인정주의. ⑨전통적 유교 사상 잔재의 영향. ⑩서양 정치 이론의 영향.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①한국인들은 새로운 그룹에 표를 던지지 않으며, 빠르게 그들을 불신하게 되는 현상 ②단기적인 안전 또는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이상을 내던져 버리는 특징 ③즉각적이며 눈에 보이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그룹들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 등이 선거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 문서는 한국의 이러한 정치적 특징이 당시 막 독립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아직 미국의 정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맺음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는 물론 오리엔탈리즘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특징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10가지 특징 중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 유교의 잔재 등은 한국 정치에서 한국 사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외의 특징은 독립 이후 건국한 지 오래된 나라라고 하더라도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거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파벌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실용주의, 허무주의, 개인주의는 어느 나라에서나 다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최근 미국의 대선에서는 정책보다 실용주의와 개인주의가 한국보다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사회가 어느 정도로 건강한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문제가 아닐까?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개발원조를 중심으로 한 반공 봉쇄정책을 추진할 때 대외정책 전문가들은 공산주의가 가진 기본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공산주의는 일종의 전염병과 같기 때문에 체질이 건강한 사회에서는 전염되지 않지만, 체질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 전 사회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 군사적 압박도 중요하지만, 사회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성장과 중산층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가 건강해진다면 공산주의가 확산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사라진다. 전술한 195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한국 정치에 대한 평가는 한국이라는 조건에서의 평가라기보다는 아직 사회 자체가 건강한 상태가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정치에 대한 평가일 수 있다.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는 70여년 전의 이러한 평가의 일부가 2024년 한국 정치에 아직도 투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선거 전후 정치과정에서도 위의 특징 중 일부가 유사하게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 40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치 행태는 개발도상국 시대의 특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48년 이후 수많은 선거가 있었음에도 기억에 남는 공약은 1956년의 평화통일론, 1971년의 예비군 폐지, 1985년의 직선제 개헌 정도이다. 그 외에는 선거에 참여한 후보는 기억에 남지만, 선거에서 제시된 정책과 그 정책이 미래 한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 거의 기억할 수 없다.

과연 한국의 정당들은 정책을 만들고는 있는가? 시대적 변화에 필요한 새로운 정치인들을 양성하고는 있는가? 아니면 누가 더 잘맞는가에 관한 여론조사에만 치중하고 있나? 정책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이슈와 프레임을 만드는 정당은 언제 출현할 수 있을까? 그 책임은 정당에 있는가, 유권자에게 있는가? 박태권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리스버그 싱글홈	레스턴 콘도	로턴 타운홈	클립턴 싱글홈
\$1,110,000	\$426,000	\$580,000	\$84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우리말 바꾸기

‘가르치다’ ‘가리키다’

많이 쓰면서도 늘 헷갈리는 말이 ‘가르치다/가리키다’이다. 헷갈리는 우리말 순위에서 빠지지 않는 사안이다. 각각의 의미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막상 사용할 때는 혼동하기 일쑤다.

우선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는 그녀에게 운전을 가르쳤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등처럼 사용된다. ‘가르치다’는 그릇된 버릇 등을 고쳐 바로잡는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아이의 버릇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저런 놈에게는 버릇장머리를 툭툭히 가르쳐 놓아야 한다”처럼 쓰인다.

‘가르치다’는 상대편이 아직 모르는 일을 알도록 알려 준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너에게만 비밀을 가르쳐 줄게”가 이렇게 쓰인 경우다. 사람의 도리나 바른길을 일깨우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다” 등과 같은 예다.

이에 비해 ‘가리키다’는 손가락 등으로 어떤 방향-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릴 때 쓰인다. “그는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켰다” “시곱바늘이 벌써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가 이런 경우다.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낼 때도 쓰인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열린광장

‘정의의 균형’을 추구하는 이유



손국락
보잉사 시스템공학 박사
라빈대 겸임교수

했다. 포도원 주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도 포도원에 가라”고 허락했다.

하루 일이 끝난 후,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 온 품꾼부터 시작해 먼저 온 품꾼까지 품삯을 주라고 일렀다. 오전에 온 품꾼들은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이 데나리온 1개를 받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데나리온 1개가 지급됐다. 먼저 온 품꾼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온종일 일한 우리와 동등하게 품삯을 지불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데나리온 1개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품꾼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고 대답했다.

원래 이 비유는 예수께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들려준 이야기다. 하지만, 러스킨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를 발표한 후부터 사회복지정책

홍보에 더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들을 살펴보면, 아침 6시에 뽑힌 품꾼들은 고용주가 원하는 실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요즘 말로 스펙이 좋은 품꾼들이다.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뽑힌 품꾼들은 전문성은 없지만 필요할 때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 고용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오후 5시에 뽑힌 품꾼들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채용을 꺼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능력이 부족해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해석해 보면, 포도원 주인이 종일 일 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들을 배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데나리온 1개는 처음에 그들과 합의한 품삯이었다.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지불한 것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활용해서 이웃에게 사랑과 물질적 도움, 그리고 기회의 공평성을 베풀기 위해서였다.

러스킨이 ‘독실의 균형’이 아닌 ‘정의의 균형’을 강조한 것은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혼자 잘 사는 것보다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진보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다.

잠망경

환자와 함께 놀기



서상
시인·정신과 의사

프로이트, 도스토옙스키, 니체 같은 인문학적 천재를 나는 몹서리치게 좋아한다. 프로이트의 6남 매 중 막내 안나 프로이트(1885~1982)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정신분석학, 특히 아동 정신분석 분야에 크게 공헌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안나는 아동 정신분석 분야에 두각을 나타낸 멜라니 클라인(1882~1960)과 심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내 영국 정신분석계는 프로이트파와 클라인파, 중도파로 갈라진다. 클라인은 ‘대상관계 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의 창시자로 군림했다. 나 또한 평생을 대상관계 이론을 추구해 왔다.

클라인은 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놀이 치료(play therapy)’에 심취했다. 성인들이 몰두하는 ‘자유연상’을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장면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반면, 안나 프로이트는 ‘놀이치료’를 통하여 어린아이의 내면세계에 발을 디밀어서 그들을 교육적 차원으로 유도하려 했다. 이때 놀이치료의 숨은 목적은 현실적응을 위한 ‘참교육’이다.

손살같이 빠른 아이들의 생물학적, 사회학적 성숙 과정에서 부모는 아들, 딸과 얼마나 같이 놀아주는가.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얼마나 놀아주는가. ‘플레이(play)’는 ‘플레이풀(playful)’ 한 무드, 즉 좀 까부는 듯 밝은 기분에 그 뿌리를 박고 있다. 억지로 노는 것은 노동에 지나지 않는다.

환자에게 훈시하는 직원을 본다. 설교다. 환자들은 대항한다. 그들 사이에 투쟁 의식이 싹튼다. 이 전투에서 늘 환자가 이긴다.

피터와 나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언어에 대한 민감성. 둘째로는 그로테스크한 유머 감각을 발휘하면서 시시때때로 까분다는 점. 게다가 나는 남에게 훈시하고 설교하는 것을 몹시 꺼리는 체질이다. 이런 면에서 피터는 역세계 운이 좋은 놈이다. 요즘 거의 매일 피터와 함께 놀면서 지내는 기분이다.

SK PEST Management LLC

BED BUG more ▶ www.sk-pest.com

빈대퇴치! ELIMINATE!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무료 견적** **571-992-5789**

skpmva@gmail.com

맞춤 용자의 딸인

마이클 장 딸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입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윈더플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마감 임박

자연이 만든 웅장한 알프스와 환상적인 자연을 품고 있는 스위스일주

8박 9일 6/18~6/26 \$3,990+항공

캐나다 록키 \$2,290 (항공포함)

5박 6일 6/30~7/5 (독립기념일 특선) 마감
8/14~8/19 (여름방학 특선)

알래스카 일주

마타누스카빙하, 콜럼비아대빙하, 엑시트빙하 모두 볼 수 있는 기회!

6박 7일 8/15~8/21 \$2,990 (항공포함)

영국일주

잉글랜드&스코틀랜드&아일랜드

11박 12일 9/2~9/13 \$5,890+항공

정통 서유럽 \$3,490+항공

10박 11일 9/10~9/20 마감 임박
10/9~10/19 마감 임박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9/18~10/1 \$4,390+항공

파노라마 서유럽

정통 서유럽에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를 더했습니다.

12박 13일 9/20~10/2 \$3,890+항공

그리스 & 터키 *산토리니 옵션

지중해의 핵심 두 나라 그리스와 터키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

10박 11일 9/25~10/5 \$2,890+항공

독일 일주

괴팅, 바흐 등 독일의 문학, 음악,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13박 14일 10/3~10/16 \$5,690+항공

윈더플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레나고 윤태웅

5월의 추천투어

북유럽 4개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0박 11일 6/28~7/8 \$5,290+항공

특전 1. 헬싱키-스톡홀름 구간 발트해 실아라인 크루즈 포함
2. 도심에 위치한 호텔 투숙으로 유식과 자유시간 만끽
3. 게이랑에르 유람선 & 낭만의 플름 산악열차 모두 포함

스페인 & 포르투갈 마감 임박

리스본, 세비아, 지브롤터, 마하스, 코르도바, 그라나다, 톨레도...

10박 11일 10/8~10/18 \$3,190+항공

호주 & 뉴질랜드

남태평양 최고 여행지,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남북섬을 동시에~

11박 12일 10/14~10/25 \$3,790+항공

프랑스 일주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둘러보는 여행!

13박 14일 10/17~10/30 \$5,690+항공

2024 크루즈 여행

알래스카 \$1990~부터 (인사이드, 항공포함) 8/30~9/6 7박 8일

뉴잉글랜드 \$1190 (인사이드) 10/17~10/26 9박 10일

남부 카리브해 \$1390 (인사이드) 12/7~12/19 12박 13일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 13일 \$3890+항공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 9일 \$5690+항공
6/18~6/26 스위스 알프스 8박 9일 \$3990+항공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 (영어가이드) 10박 11일 \$2990+항공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 (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 (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 (항공포함)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항공포함) 인사이드 \$1990~부터 (항공포함) 발코니 \$2590~부터 (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 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4390+항공

9/20~1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 13일 \$3890+항공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10/14~10/25 호주&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 10일 \$1190 (인사이드)

10/22~10/31 터키 성지순례 (소아시아 교외) 8박 9일 \$1990+항공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단풍특선) 10박 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 11일 \$3590+항공

11/12~11/25 아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 14일 (시내산) \$3980+항공
11/15~11/25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298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 13일 \$1390 (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탈리아 일주 6박 7일 \$2390+항공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2024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것!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2차 6/18~6/28 (영어가이드) 3차 9/24~10/4 마감 임박 4차 10/15~10/25 마감 5차 10/22~11/1 (단풍특선)

특전 1.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서울/부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거제 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3박 4일 \$899+항공 매주 일요일
4박 5일 \$999+항공 매주 금요일
5박 6일 \$1499+항공 매주 일요일
9박 10일 \$2149+항공 매주 일요일

3박 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 5일 대만 \$499+항공
3박 5일 푸켓 \$599+항공 3박 5일 대만 \$690+항공
3박 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 5일 싱가포르 \$790+항공

한국 왕복 비용으로 대한항공 항공권+동남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여행 3박 4일 동경 \$999+항공 8박 9일 일본전일주 \$2690+항공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분검진) 한국국적 \$700/미 \$750 미국국적 \$910/미 \$975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분검진) 남/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분검진) 남/여 \$460

메모리얼 데이 특선

나이아가라 워터스글렌 2박 3일 5/25~5/27 \$650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여행! 미동부의 그랜드캐년, 레저웨이즈 주립공원 북아메리카 최대규모의 나이아가라 폭포 (안개속너오 탑승)

뉴욕 특선 1박 2일 5/26~5/27 \$450

업그레이드 된 디렉스 호텔, 브루클린 명소, 예술 허드슨 아드, 맛집 전망대 스테이크 특선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뉴욕 특선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성/몬트리올/퀘벡 플라츠버그/뉴욕

5박 6일 \$1350 일매주 출발

대행버스 출발: 6/24, 7/22, 8/5

뉴욕 뉴욕 특선 3박 4일 \$899 일매주 출발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대행버스 출발: 7/8, 9/23, 10/21

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미서부 일주 8박 9일 \$1450+항공 일매주 출발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성극 **다니엘** \$199

5/16, 5/30, 6/13, 7/11, 8/1, 8/22, 9/19, 10/17, 11/14

뉴욕 동부 명소 핵심 방문

나이아가라 2박 3일 \$650 일매주 출발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대행버스 출발: 7/22, 9/16, 10/7

뉴욕 1박 2일 \$399

캠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일

옐로스톤 3박 4일 \$890+항공 일매주 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일매주 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교육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May 7, 2024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적인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학비 저렴하지만 영어 이외 현지어 배워야

유럽으로 떠나는 학부 유학 다양성을 추구하는 미국 대학 교육시스템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확실하지 않고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다양성이 바로 문명의 발전 원동력이라고 본다. 그래서 미국 대학은 교환 학생, 제휴 캠퍼스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의 다양성 함양을 돕고 있다. 이런 기류 덕분인지 미국 고교 출신 학생들이 유럽 및 타국 대학으로 아예 유학을 떠나는 것이 드물지 않다.

교양과목 중시하는 미국 대학 비해 유럽은 전공 집중 '3년 학사' 가능

학생들은 캠퍼스 생활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어디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미국에 온 유학생의 사례를 우선 살펴보자. 파키스탄 국적의 한 학생은 예비 학부생으로서 미국의 20개 이상의 대학, 터키의 몇몇 대학, 영국의 여러 학교에 지원했다. 그는 스코틀랜드 클래스고대, 영국 셰필드대, 웨일스 카디프대 등 유럽 학교에서 합격과 장학금 제의를 받았지만 미국 노던 아이오와대를 선택했다. 2019년에 화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노던아이와와(UNI)는 양질의 교육, 많은 기회, 평화로운 캠퍼스 환경으로 중서부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고 만족했다. 이 학생의 사례와 다르지 않게 시간과 비용, 전공, 학교와 프로그램, 대학 생활 측면에서 정리해 봤다. 최근에는 한국으로 유학 가는 백인 학생도 있는데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시간과 비용

유럽과 미국의 고등 교육을 비교할 때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요소는 학위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미국 대

학은 일반 교육 과정을 요구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는 폭 넓은 교육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유럽 대학은 특정 연구 분야에 더 집중하는 심도 있는 교육을 선호한다.

미국과 영국의 눈에 띄는 차이점은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 4년이 걸린다. 스코틀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학위를 취득하는 데 일반적으로 3년이 걸린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학사 학위가 4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CLEP 또는 AP(Advanced Placement) 또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통해 고교에서 취득한 여름 강좌나 대학 학점을 통해 빠르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전공 변경이나 추가, 연구나 해외 유학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회로 인해 졸업하는데 4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학위 취득 기간은 또한 비용 문제를 야기하는데, 미국 대학과 유럽 대학을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독일의 대부분 공립 대학은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없다. 심지어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기관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경우 학사 과정의 경우 연간 3000달러, 석사 프로그램의 경우 4000달러가 들어간다.



학부과정에서 전공학과에 초점을 두는 유럽대학은 3년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빙닷컴 copilot생성]

그러면 백인 학생이 한국에 유학한다면 어떨까. 유학생을 위해서 내국인 학생과 다른 장학제도가 있어 미국 보다는 학비가 저렴하지만 학위 취득기간은 프로그램에 따라 매우 다르다. 한국인만 듣는 수업을 수강한다면 재학 기간을 연장해야 할지도 모른다.

◆전공

미국 대학과 유럽 대학의 전공 선택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유연성과 자유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학사 프로그램에는 일반 교육 과정이 포함돼 있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 특정 전공에 대한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 심지어 추가 시간도 준다. 전공이 지정되지 않은 대학에서 공부하면 평생 직업 결정을 내리는 것과 병행하여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 미리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하기보다는 세상을 보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시간을 제공한다. 추가 전공이나 부전공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 대학에서는 학생들은 특정 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즉시 그 분야를 시작해야 한다. 학생의 의사 결정 과정에는 졸업 후 목표가 포함돼야 한다. 인턴십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한 도시까지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미국식보다는 유럽 식에 가깝다. 융통성 있는 과정을 추구하지만 전공과목 수업중 영어 강의에 대한 불만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

◆학교 및 프로그램 유형

미국과 유럽 모두 오랜 역사를 지닌 고등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이 옵션을 비교해 보면 제공되는 학교와 프로그램 유형의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장병희 기자

▶ 2면 '유럽 유학'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메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세균에게 배우는 과학철학

세균이라 하면 우선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고들 생각한다. 소독제나 항생제를 써서 박멸하는 것이 우선이며, 균을 없애는 것은 위생과 보건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그런데 세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유익한 세균도 있다는 것은 요구르트 등 유산균 음료를 마시며 자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리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그 반면 서양에서는 좋은 세균도 있다는 것이 요즘은 새로운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생리학이나 의학의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지만 서양의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직 새로운 이야기이다.

유산균 음료 애호가들도 그것이 왜 유익한지는 잘 모를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의 창자 속에 살고 있는 각종 세균은 음식을 분해하여 우리 몸에서 흡수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 그러한 정상적 세균들은 인체에 무해하며, 그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진짜 해로운 다른 세균들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준다.

인체 세포 수보다 많은 몸속 세균

그런데 근년에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균이 하는 역할은 그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며 복잡하다. 첫째, 세균은 우리 몸속에 그냥 조금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 하나의 몸 안에 살고 있는 세균의 수를 따져 보면 몇 조 개로, 인체 자체의 세포 수보다도 많은 엄청난 수라고 한다. 그 종류도 1000가지를 넘으며,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세균들이 하는 역할도 다양하다. 우선 신진대사를 돕는 부분을 보자.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 곡식이나 채소에 포함된 복합적 탄수화물은 인체 자체에서 생산하는 위액이나 담즙 등으로 분해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드의 현미경 사진. 김치에서 생성되는 유산균 중 하나로, 김치가 익을 때 증가해 김치의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 [세계김치연구소]

세균이라고 전부 해롭진 않아 신진대사와 면역 돕는 세균도 인간·세균 공생하며 함께 진화 다른 생물에 없어서 안 될 존재

세균의 작용으로 분해되어야만 인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풀을 뜯어먹고 사는 소나 다른 유제류의 동물들에게는 더 심각한 이야기다. 소는 인간보다도 위장에 더 많은 세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균이 일할 수 있도록 내장이 엄청나게 크다. 세균이 없으면 초식동물이란 없다. 초식이 불가능하다면 인간과 같은 잡식동물도 있을 수 없다.

너무 깨끗하면 필요한 세균 못 가져

세균이 하는 역할은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서 또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세균들이 없을 때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세균의 부족으로 천식·비만에 각종 암까지도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인체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세균들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렇게 훈련이 되었을 때 진짜 해로운 병원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공격하는 능력이 갖추어진다. 또 위장과 뇌의 기능은 서로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장에서 세균들이 정상적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았을 때 우려되는 점은, 현대 문명사회의 환경과 관습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들

이 필요한 세균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근년에 땅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치명적 알레르기 반응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명사회의 어린이들이 세균을 충분히 접촉하지 않고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출생 전의 태아는 세균에 거의 노출되지 않지만, 출생 과정에서부터 우선 난체에 있는 세균을 접하게 된다. 태어난 후에는 먹는 음식이나 접촉하는 환경에서 수많은 세균을 만나고 그것들을 흡수한다. 아이가 자라면서 몸속의 세균 집합체도 늘어나며 성숙해진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지나치게 청결을 강조하고 조금만 아파도 몸에 항생제를 투여하며 세균을 무차별하게 없애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미생물 집합체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도리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세균은 인체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공생(symbiosis)하는 것이

라고 보아야 한다. 요즘 첨단적 연구를 하는 진화생물학자들은 인간과 같은 생물이 진화할 때 그 자체만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하는 세균과 함께 이루고 있는 복합체(holobiont)가 적응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인간의 유전자 자체를 분석해보면 많은 부분이 각종 세균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한다. 공생하는 세균과 유전자를 교환하는 그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간들은 세균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비교적 근래에 와서야 알아내었다. 1850년대에 프랑스의 파스퇴르가 세균을 감염증과 부패의 원인으로 확실히 지적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에 독일의 코흐 등 여러 학자의 연구를 통해 각종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한 기본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균은 병원균으로만 간주되었고,

그 후로 약 150년이 지난 후에야 과학자들은 세균이 유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활발한 연구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150년이 더 지나면 또 얼마나 신기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지식을 얻게 될지 알 수 없다. 무언가 하나를 발견했다고 기뻐할 것만 아니라, 그 발견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참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고 연구해야 할 것도 많다. 하찮게 여기는 인간의 뱃속이 이렇게 오묘할 줄이야. 세균에게서 겸허함을 배운다.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교수

▶ 1면 '유럽 유학'에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수백 개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가 있는 반면, 유럽에는 비교적 적은 숫자만이 있다.

미국의 프로그램을 보는 많은 학생들은 교육 기관의 다양한 유형에 매력을 느낀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대규모 공공 연구기관, 소규모 민간 교양 교육기관, 도시 또는 교외 교육 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다.

유럽의 인기 여행지 중 하나인 영국에서 학생들은 대도시 중심지부터 외딴 교외까지 다양한 위치에 있는 매우 다양한 대학을 찾을 수 있다. 영국에는 다양한 전문 분야를 다루는 160개

이상의 대학이 있다. 11세기에 설립된 대학, 산업 혁명 이후 발전한 대학, 학생들에게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1960년대에 설립된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모두 비즈니스 및 산업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학생들이 선택한 직업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전문가들은 유럽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비 유학생들은 외국어를 배워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가급적 명문 대학을 다니는 것이 좋다. 최소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추천한다.

◆대학 생활

예비 유학생들은 미국과 유럽 대학의 캠퍼스 생활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유럽 대학에서는 캠퍼스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강력한 캠퍼스 문화는 없다. 그래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도시 생활에 더 많이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유럽 대륙에서는 모든 활동 또는 대부분의 활동이 한 캠퍼스 위치에 집중돼 있는 대학이 거의 없으며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학생 기숙사는 캠퍼스와 가깝지만 도시 어느 곳이나 위치할 수 있으며, 대학 학과도 다른 지역에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 대학교에는 하나의 대규모 중앙 캠퍼스가 있지만 다

양한 학과가 도시 전역에 분산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학생들이 강의 사이에 이동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럽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대조적으로, 미국 대학은 일반적으로 기숙사, 대학스포츠, 남학생 클럽, 여학생 클럽 및 클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캠퍼스 생활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캠퍼스 커뮤니티와의 강력한 정체성을 개발하고 대부분의 사회생활은 캠퍼스를 기반으로 한다.

안전은 일반적으로 캠퍼스 생활을 논의할 때 주제다. 자녀의 안전이 걱정되는 부모에게는 유럽의 도시가 더 안전한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다. 북유럽 국가의 수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이며, 학생들은 미국에 비해 훨씬 낮은 등록금으로 더 높은 순위의 대학을 찾을 수 있다.

결국 학생은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살면서 자기에 맞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핀란드 헬싱키에서의 몇 년은 교육이 아무리 좋더라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 능력자라고 해도 한국어 생활하기가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기숙사에서 생활하므로 이점이 있다.

장병희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연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무 보고, 절세 전략, 세무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무 보고

- 50개 주 개인 세무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무 탕감 신청

사업체 세무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무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권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살려고 나왔는데 갈 곳 없어요” 가정 밖 청소년 최소 30만

(현장 관계자 추산)

“막막해도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요.” 손에 쥐어진 건 달걀 캐리어 가방 하나와 핸드폰뿐. 김경수(19·가명)군은 고교 3학년 첫 등교일에 자퇴서를 쓴 뒤 그대로 집을 나왔다. 김군은 “부모님이 이혼과 재혼을 거치면서 집안에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맞기도 많이 맞았다”며 “숨이 너무 막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이럴 바에야 집 밖으로 탈출하는 게 사는 길이다 싶었다”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막상 나와 보니 갈 곳이 막막했다. 마침 학교 근처에 청소년 쉼터가 있어 찾아갔지만 임시 쉼터인 이곳의 체류 기한이 최대 7일이라 오래 머물 수도 없었다. 당장 먹고살 돈부터 마련해야 했던 그는 무작정 식당 문을 두드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고,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쉼터를 소개받았다. 김군은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할지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가족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은 가족 내 갈등·학대·폭력·방임이나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있어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꼭 필요한 청소년으로 규정돼 있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성범죄 등 취약

하지만 정작 가정 밖을 떠도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11만5000여 명으로 추산했지만 청소년 쉼터 등 현장 관계자들은 “공식 통계엔 잡히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이 상당수여서 실제로는 최소한 3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모 이혼·가출 등으로 가정서 이탈 52%가 ‘가족 문제 때문에 집 나왔다’

보호 시설 전국 151곳 2000명에 불과 노숙·찜질방 전전하다 범죄 연루도

전문가 “시설 관리 인력 등 늘리고 미국처럼 퇴소 후에도 자립 도와야”

가정 밖 생활 중 지낸 주요 장소

친구·선후배집	62.0	건물·길거리 노숙	29.8	청소년 쉼터	27.5	여관·모텔·월세방	27.5	찜질방·고시원·PC방	17.6
---------	------	-----------	------	--------	------	-----------	------	-------------	------

이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고민은 “갈 곳이 없다”는 점이다. 가정불화로 중1 때 집을 나온 황찬우(18·가명)군은 “원래 가출을 계획했던 게 아니라 도저히 못 견디고 뛰쳐나오다 보니 당장 잡자리부터 마땅찮더라”며 “게다가 중1은 아동으로 분류되지도 않아 보호 시설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정 안에서 밀려나갈 반복하는 셈이다.

이들을 수용해 보호하는 시설 또한 태부족이다. 현재 가정 밖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청소년 쉼터는 일사·단가·중장기 시설을 다 합해도 전국 138 곳에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관도 13곳으로 총 수용 인원이 2000

청소년 실종·가출 신고 건수

단위: 건, 자료: 경찰청



주된 가출 이유

52%	부모와의 문제
21.8	학업 문제
10.8	친구들과 함께하려고
2.4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1.4	학교 문제
11.6	기타

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실태 조사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갈 곳 없음’(42.4%)을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로 꼽았을 정도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은 머물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이들이 가정을 나와 지낸 주요 장소 중 1위는 ‘친구나 선후배 집(62.0%)’이었지만 오래 신세를 질 수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건물 또는 길거리에서 노숙하거나 찜질방·고시원·PC방 등을 임시 거처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모 경기북부청소년 자립지원관장은 “쉼터 등 보호 시설에 들어와 있는 소수의 가정 밖 청소년을

잘 보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시설 밖을 떠돌며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는 대다수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가정으로의 복귀가 최상의 해법이 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가출 사유 1위가 ‘부모와의 문제(52%)’로 나타나는 등 가정 내 갈등을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오랜 기간 아동 학대나 가정불화를 참고 참다가 끝내 가출을 결심한 청소년이 상당수”라며 “이들에게 무조건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할 수만은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부처마다 청소년 연령 규정 달라 고충

금전 문제도 가정 밖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당장 돈이 궁한 가출 청소년들이 원룸을 빌려 함께 생활하는 ‘가출팸’이 급속히 늘면서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최근엔 이곳에 먼저 자리 잡은 청소년이 나이가 어리거나 연약한 아이들에게 ‘앵벌이’를 강요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황대연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간사는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유혹에 속아 이른바 핸드폰깡이나 환전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이렇게 범죄자로 낙인 찍힐 경우 자립은 훨씬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가정 밖 청소년 중에서도 여성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김은

영 강북청소년드림센터장은 “여성 청소년의 경우 집을 나온 사실이 SNS에서 확인되자마자 성적 만남 요구가 줄을 잇는 게 현실”이라며 “당장 생필품을 살 돈도 마땅찮다 보니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만큼 이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월 40만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주거 지원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지만 단기간 지원에 치중하는 등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처마다 청소년 연령 규정이 각기 다른 점도 걸림돌이다. 청소년 복지시설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은 9~24세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고 민법은 19세부터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통일된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정책의 사각지대에 소외돼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 관리’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미국과 영국의 시스템을 참고할 만하다는 제안도 곁들여진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턱없이 부족한 청소년 쉼터 관리 인력과 예산을 현실화하고 보호 시설 등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개울가에 내던져진 심장’이란 가정 밖 청소년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무너져가는 가정을 복원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민 기자

위대한 업적의 잣대

필즈상은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린다. 2022년에 허준이 교수가 받은 상이다. 필즈상을 받으면 작 은 메달을 준다. 앞면에는 고대 수학자 아르키메데스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원기둥에 내접하는 구가 새겨져 있다. 뒷면의 그림은 아르키메데스가 자신의 묘비명으로 새겨달라고 유언한 것이다. 궁극하다. 필즈 메달에 기원전 3세기 인물인 아르키메데스가 새겨진 이유가 무엇일까? 가우스를 필두로 위대한

수학자가 술하게 많은데도 말이다. 구의 부피를 구한 것이 인류 최고의 수학적 업적이던가? 요즘은 자연계 대학생들도 구의 부피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최고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 인류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한 후 구의 부피를 구하기까지 무려 1500년의 세월을 기다렸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를 만난 것이다. 더구나 그의 이론을 넘어서는데 다시 2000년의 세월이 걸렸다.

인류 지성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말할 때 그 진위는 중요치 않다. 그 발견이 얼마나 오랜 관습을



넘어섰는가, 또 그 업적을 넘어서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가 하는 것이 판단법이다. 그렇다. 로마제국 시대의 거장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는 지구중심설을 주장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 천문학책을 넘어서는데 인류는 1400년의 세

월이 필요했다. 더구나 케플러가 행성의 운동법칙을 발견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에 맞선 것이 많다고 얘기했다. 신기한 일이다. 태양중심설을 논증하는데 지구중심설 이론이 중요했다고 한다. 이는 인류 지성사를 오늘의 잣대로 기술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흔히 시대가 변화할 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적 진리도 어느 날 엉터리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과학적 가치를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우영 고등과학원 HCMC 석학교수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5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

센터빌 콘도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꼭,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 리 브로커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개정된 FAFSA 양식에 대하여

FAFSA는 모든 연방, 주정부, 학교의 재정보조 신청의 첫 스텝으로서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앞글자를 모아 만든 단어이다. FAFSA는 미국의 교육국,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 학생의 재정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재정 보조 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연방 정부에서 주는 보조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주정부나 각 학교에서도 이 정보를 근거로 해서 재정보조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청 내용에 근거하여 지원 학교로 보내지고나면 학교에서는 그 리포트를 가지고 재정보조 액수를 결정한다.

그런데, 25~26학년도 대학 입학 예정자들이 합격 통보를 받은 대학으로부터 아직 Financial Aid Package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진학할 대학으로부터 Financial Aid Package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올해부터 FAFSA 신청서가 대폭 달라졌기 때문이다. FAFSA작성과 제출 절차가 까다롭다는 불평이 수

년간 이어진 끝에 연방회의는 FAFSA 간소화법을 통과시켰다. 간소화법에 따라 기존의 복잡했던 108개 문항수가 36개로 대폭 줄었고 수혜자격을 결정하는 계산 방식도 간소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세금자료와 관련된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됐다. 예전 신청서와 비교해 질문 항목을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인 것이다. 이를 통해 FAFSA 처리가 더 간소화되고 학자금 지원 대상 중소득층 학생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신청서 단축에는 성공했지만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 정보를 파악하는 정보 분석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Financial Aid Package 발송 지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기존 FAFSA 신청은 10월에 오픈이 되었는데, 간소화된 FAFSA는 약 3개월이나 지연된 지난해 12월 처음 시행되자마자 지연, 기술적 결함 등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신청서 웹사이트 접속에 어려움을 겪거나 접속 뒤에도 작성 완료가 되지 않아



줄리 김 탑에듀피아 대표

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부모님들이 소셜 번호가 없는 경우 예전에는 paper로 사인을 해서 보내는걸로 진행 했었는데 이번에는 양부모 둘 다 FSA 어카운트를 만든 후 전자 서명을 해야 하는데, Application을 서로 link 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에러가 일어나고 있으며 접수가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수정을 하고 싶어도 수정이 되

지 않아 답답한 실정이다. 그리고 추가로 학교를 add 해야 할 학생들은 신청서 작성이 불가해 발만 동동 굴러야만 했다.

더구나 FAFSA 마지막 단계에서 예전에 이미 sign까지 했었는데 incomplete라며 signature를 하라는 이메일을 받고 있으며, Financial Aid Package를 받은 학생들중 Financial Aid Checklist에 다른 서류들은 모두 received 라고 나오는데 FAFSA만 Awaiting이라고 나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

전국학자금행정가연합회(NASFAA)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입학생들에게 Financial Aid Package를 보낸 대학은 34%에 불과하다. 전체 대학의 절반이 넘는 54%는 아직 Financial Aid Package 발송 준비조차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는 부정확한 세금보고 기록, 인플레이션 계산 오류등으로 학생 정보 기록(ISIR)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나주 연방교육부는 이미 발송한 학생 정보 기록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50만 개에 달하는 신청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재검토 완료에만 수 주가 걸릴 전망이다.

학자금 보조는 상당 부분 연방정부 기금으로부터 나온다. 현재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Pell Grant는 7,395달러다. Pell Grant는 상환 의무가 없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연방 교육부 데이터를 분석한 통계를 보면 지난 1월말 현재 전국에서 약 70만명의 대학 입학 예정자들이 FAFSA를 제출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150만명보다 절반 아래로 감소한 숫자이다.

대대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FAFSA 시행과 관련된 잡음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문의 : 703-576-7803, Email : topedupia@gmail.com

11학년 때 커먼앱 어카운트 개설 가능...대입원서 작성 빨리 시작하는 게 최선

대입 들여다보기

대입 원서를 작성하려면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다.

원서에 들어갈 여러 항목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지원자 혼자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성적표는 카운슬러에게 요청하고, 추천서는 교사와 카운슬러에게 부탁해서 대학에 차질없이 보내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불안감을 줄이고 양질의 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서 작성을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미국의 대학 중 1000여곳 이상이 커먼앱(Common App)으로 원서를 받는다. 커먼앱은 매년 8월 1일 오픈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그 날짜 전에는 공식적으로 커먼앱 플랫폼을 통해 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11학년 때 커먼앱 어카운트를 만드는 것은 가능

하다. 일찍 어카운트를 열고 커먼앱 플랫폼에 친숙해지는 것이 좋다.

또한 원서 작성을 일찍 시작하려면 여름방학을 잘 이용해야 한다. 12학년 가을학기가 시작되면 수업과 과제를 처리하느라 할 일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원서를 쓰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첫째,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원서가 요구하는 다양한 항목과 각각의 마감일을 메모한다. 고등학교 카운슬러 또는 칼리지보드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학들도 보통 웹사이트에 입시 요강과 함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기재한다.

다수의 대학에 원서를 낼 계획이라면 아예 모든 대학의 원서를 총괄하는 '마스터 스프레드시트'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래야 한 눈에 진행 과정을 파악하기 쉽다.

예를 들어 10개 대학에 지원한다면

대학들의 이름과 원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 마감일 등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뒤 하나씩 완성할 때마다 다른 색깔로 표시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마감일이 있다면 전화의 캘린더나 리마인더 기능에 저장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둘째, 추천서는 가능한 일찍 부탁해야 한다.

보통 고등학교 카운슬러 1명과 교사 2명에게서 추천서를 받게 된다. 에세이와 마찬가지로 추천서는 지원자의 원서에 맥락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단지 수치로 원서에 나타나는 성적을 넘어서 지원자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에 강점이 있으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추천서가 입증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해 잘 아는 교사와 카운슬러는 개인적이고 강력한 추천서를 써 줄 수 있다. 이들이 학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두루뭉술한 내용만으로 추천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

로 지원자는 추천인을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천서를 쓸 수 있도록 가능한 일찍 부탁하는 것이 좋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추천서를 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보다 최소한 2주 이상 앞서 부탁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전략은 교사와 카운슬러의 개인 상황을 고려해 2~3개월 앞서 부탁하는 것이다. 일부 교사는 매년 추천서를 써줄 학생들의 숫자를 정해 놓는다.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추천서를 써 주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늦게 부탁한다면 내가 원하는 교사가 추천서 작성을 거절할지도 모른다.

셋째, 에세이 작성이다. 커먼앱 메인 에세이 외에 대학마다 요구하는 추가 에세이가 있다.

에세이는 보통 지원자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야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12학년이

시작하기 전 여름방학 때 미리 시작한다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커먼앱은 일반적으로 다음해 가을 학기 입시를 위한 메인 에세이 질문을 매년 1월 또는 2월 발표한다. 지원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에세이 작성을 시작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12학년 직전 여름방학인 6월 초에는 커먼앱 에세이와 UC 에세이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글쓰기의 소재를 찾는 브레인스토밍부터 초안 작성 등은 최소한 여름방학 때 할 것을 권한다. 그 래야 에세이를 쓰고나서 친구나 멘토, 교사 등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은 뒤 수정할 시간을 넉넉히 가질 수 있다. 특히 에세이 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일찍 시작해야 한다.

미루다가 나중에 시간이 촉박해지면 챗GPT 같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편법을 동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빈센트 김 카운슬러·어드미션 마스터즈

1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 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 구글 스마트 쇼핑 |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 문자마케팅 | 유튜브광고 | 소셜미디어 | 웹사이트 제작 | 온라인 쇼핑물 | 이메일 마케팅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스크린골프 제왕’ 김홍택, 7년만에 필드도 접수

(G투어 통산 12승)

KPGA GS칼텍스 매경오픈 우승 후반 9홀 4개 버디, 연장서 역전승 “어린이날 딸에게 선물한 거 같아”

‘스크린골프의 제왕’으로 불리는 김홍택(31)이 초록빛이 완연한 필드에서 7년 묵은 우승 감증을 풀었다.

김홍택은 5일 경기도 성남시 남서울골프장에서 열린 제43회 GS칼텍스 매경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로 2타를 줄여 촌라땃 촌분응암(26·태국)과 합계 10언더파로 공동선두에 올랐다. 이어 18번 홀(파4)에서 열린 1차 연장전에서 파를 잡아내 이 홀에서 보기를 기록한 촌분응암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통산 2승째를 챙긴 김홍택은 이날 우승 상금 3억원을 받았다. 또, 한국프

로골프(KPGA) 투어 5년 시드와 함께 아시아 투어 2년 카드도 획득했다.

김홍택은 스크린골프 G투어에서 통산 최다인 12승을 거둔 이색 경력의 소유자다. 키 1m73cm, 체중 75kg으로 체격은 작아도 근력이 뛰어나 270~280m를 넘나드는 장타를 때린다. 골프 전문가들은 김홍택을 두고 “스크린골프 실력의 반만 발휘해도 KPGA 투어에서 밥 먹듯이 우승할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동아회원권그룹 부산 오픈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뒤 좀처럼 정상과 연을 맺지 못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KPGA 투어 그린적중률 1위를 기록했지만, 최고 성적은 2021년 9월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기록한 공동 4위였다.

그러나 이날 메이저급 대회로 분류

되는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스크린골프와 실제 필드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형 선수’의 입지를 굳혔다.

부슬비가 내린 최종 라운드에서 전반 9홀을 마칠 때까지 김홍택의 우승을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합계 8언더파로 출발한 김홍택은 전반 버디 2개와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로 2타를 잃어 상위권에서 멀어졌다. 이 사이 13언더파 단독 선두 이정환과의 격차는 한때 7타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김홍택의 아이언샷은 후반 들어 살아났다. 13~15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포함해 후반 9홀에서 4개의 버디를 잡아낸 끝에 촌분응암과 공동선두(합계 10언더파)가 됐다.



스크린골프의 제왕으로 불리는 김홍택이 5일 끝난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하면서 초록빛 필드도 정복했다.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는 김홍택. [사진 대한골프협회]

승부는 연장 첫 번째 홀에서 가려졌다. 우드를 잡은 김홍택의 티샷은 왼쪽 페어웨이 옆 러프에 떨어졌다. 반면 드라이버를 잡은 촌분응암의 티샷은 왼쪽 언덕 아래 벙커로 빠졌고, 두 번째 샷마저 벙커 턱을 맞고 멀리 가지 못했다. 결국 김홍택은 이 홀에서 파세이브에 성공한 반면 촌분응암은 3온 2퍼트로 보기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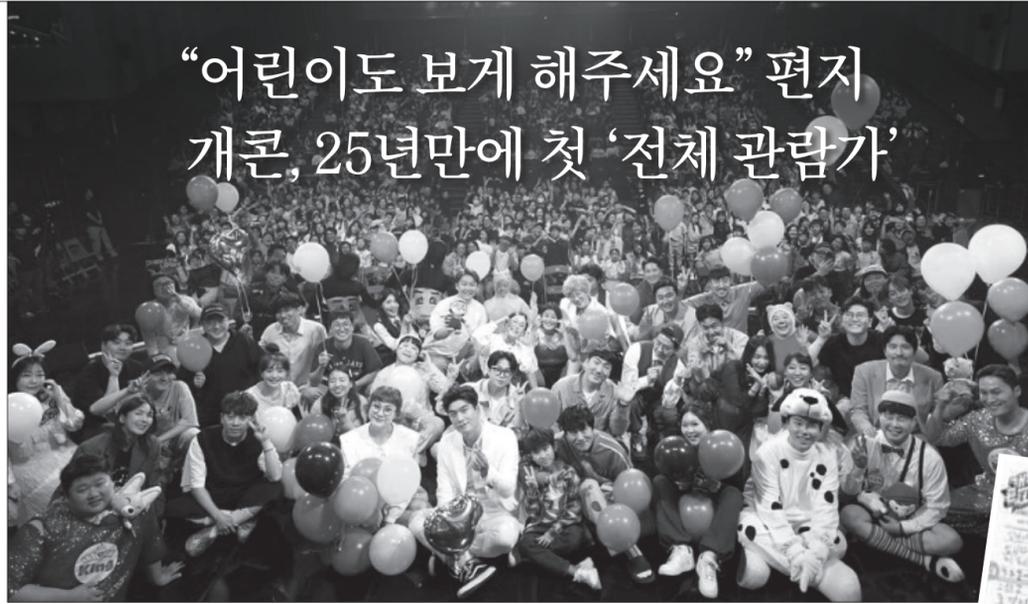
김홍택은 “스크린골프의 경험이 우승의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당분간 시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기쁘다. 또, 어린이날을 맞아 딸에게 좋은 선물을 하게 돼 뿌듯하다”고 했다.

이날 경북 구미시 골프존카운티 선산에서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교촌1991 레이디시오�픈에선 박지영이 함께 13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다. **고봉준 기자**

“어린이를 못 보게 하면, ‘개그콘서트’(이하 ‘개콘’)가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지난 4월 중순 경북 안동에 사는 어린이 류모 군은 KBS ‘개콘’ 제작진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마음이 움직인 제작진은 5월 5일 방송분을 어린이날 특집으로 마련했다. 녹화 무대도 어린이에게 개방했다. 이날 방송분은 기존 ‘15세 이상 시청가’ 대신 ‘전체 관람가’였다. 1999년 ‘개콘’이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녹화는 지난 1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진행됐다. 원래 오후 7시 시작인데, 아이들 취침 시간을 고려해, 한 시간 앞당겼다. ‘개콘’ 김상미 CP는 “처음 시도하는 전체관람가 방송이라, 여러 부분을 섬세하게 신경 썼다”고 말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1000명 방청 모집에 5800명이 신청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어린이 500명과 보호자 500명이 녹화장을 꽉 채웠다. 어린이들은 ‘개콘’ 제작진이 마련한 인형을 선물 받고 코너별 포토콜에서 사진을 찍었다. 마치 테마파크 같았다.

내용의 수위도 어린이에 맞춰 온 세



어린이날 특집 ‘개그콘서트’ 녹화는 어린이 500여명과 함께했다. 작은 사진은 제작진이 받은 어린이의 편지. [사진 개그콘서트 SNS]

“어린이도 보게 해주세요” 편지 개콘, 25년만에 첫 ‘전체 관람가’

어린이날 특집, 시청 연령 낮춰 1000명 방청 모집에 5800명 몰려 ‘킹받쥬’ 등 눈높이 맞춘 코너 선배

대가 즐길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종영했지만, 어린이들이 좋아했던 코너 ‘킹받쥬’ ‘바나나’ ‘바디언즈’도 무대에 다시 올랐다. 엘사, 백설공주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곳곳에 등장했다. 12년 만에 깜짝 부활한 코너 ‘감사합니다’도 눈길을 끌었다.

개그맨 정태호는 “어린이가 따라 하기 쉽고, 부모님은 전에 봤던 코너라서 재밌을 것 같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인기 코너 ‘데프콘 어때요’ ‘바나나’에 나와 환호를 받은 개그우먼 조수연은 “아이들 덕분에 우리가 더 힘을 얻었

다”고 말했다.

전체관람가일 경우 밋밋할 거라는 우려는 기우였다. 어린이들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활용한 코너 ‘챗플러스’에선 기발하고 재밌는 이른바 ‘짤’(짧은 동영상)이 쏟아졌다. 어린이들의 참여가 가장 뜨거웠던 코너는 ‘소통왕 말자 할매’였다. ‘눅잠 자고 싶어요’ ‘학원 가기 싫어요’ ‘숙제가 어려워요’ 등 쏟아지는 어린이들의 고민에 녹화가 10분 이상 길어졌다. 말자 할매(개그우먼 김영희)에게 상담을 받으려는 어린이가 너무 많아 제작진도 놀랐다고 한다.

김상미 CP는 “전체관람가로 방송을 계속할 순 없겠지만, 이번 어린이날 특집은 저출산 시대에 뜻깊은 특집이란 생각이 든다. 의미 있는 요청이 있다면,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지영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DAON GROUP LLC TAX & ACCOUNTING SERVICES
다운 회계법인

• 회계 업무
 • 신규사업 등록
 • 세무감사 대변
 • 세무 보고
 • Payroll Service

* Text, Fax, Email 로도 세금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조동구 공인회계사
 Eddie Cho, CPA

VA Text / Phone : 703-637-2006 7535 Little River Tpke. #325B Annandale, VA 22003
 MD Text / Phone : 410-787-9077 8600 Snowden River Pkwy. #300 Columbia, MD 21045

Fax: 410-787-6686 Email: echo@daoncpas.com, eddiechocpa@gmail.com

김민지 변호사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삼국지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5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력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력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5월 7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는 무료게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자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 모집
-폴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폴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력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폴/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광고문의 : 703-281-966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폴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폴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_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푸드 물류회사
폴/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폴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폴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오더.
(초보자가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력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력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 근무조건: 폴타임 혹은 파트타임
-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 미국 취업에 걸려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폴/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폴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폴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폴/파트타임,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차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취업기회)
영주권 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화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폴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르뱅 베이커리 캐쉬어 구합니다.
(오전/오후/주말)
703-263-2000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워싱턴 디씨 IAD 공항 라운지
키친스태프를 구합니다
201-551-8861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 하실 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폴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폴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물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사시 & fried
chicken / 파트타임 & 폴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시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수일분 구함.
파/폴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폴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폴/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입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렌트 수입 좋은 콘도 4채 매매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200/m
- 매매가: \$5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화요일 중앙일보

<세탁/엘리베이터>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폴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슈어
Tel. 703-628-9100

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엘도레이션 구합니다
(폴·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윈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 분
파타임/폴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 (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 정비소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연합감리회 위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마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위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파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Mother's Day Week에
가게 안에서 일하실 분과 Driver 구합니다.
571-230-7686 Text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 고객마케팅관리 하실 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사이 컴퓨터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 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덕로드.
202-271-2726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 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링 주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 3층, 방 4+ 화장실 3.5.
▶703-244-3453

센터빌 CVS 근처, 지하 전체 렌트(거실, 화장
실, 방, 키친, 냉장고),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1,300
571-243-7027 (문자)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 5, 화장실 4, 차고 2, 좋은 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 4, 화장실 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 4, 화 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 2, 화 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마트 앞, 월 \$3,400
방 3, 화 3, 차고 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 3, 화 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 3, 화 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소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 3 화 3
차고, 페어레이크 소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 1, 화 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콘도 렌트. 방 2, 화 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콘도 렌트, 센터빌 사거리 불링장 뒷편,
남향집 조용한 지역, 큰 방 2개, 화장실 2개,
H마트 및 은행 도보 10분, 단지 수영장 5분
거리, 지정 주차 및 방문 차량 주차 무한대,
8월 말 입주 가능, \$2,200 (전기세 별도)
703-229-3947

페어팩스 웨그말 길에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 1개 렌트
▶703-470-5238

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렌트
방 1, 화장실 1, 냉장고, 인터넷/취사 가능.
출입문 별도.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7분, 조지메이슨 7분
남학생 환영.
571-554-4224 (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 렌트. 전망이 좋고 깨끗합니다.
가구완비. 학생, 직장인 환영 (여자분)
571-232-6052

애넌데일 방 렌트(원룸스타일),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개인샤워실, 키친 완비
571-232-6052

애난데일 h마트 뒤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 1, 욕실 별도
금연자, 롯데 10분거리.
702-622-8853

클리프턴 유니온빌 물 부근 싱글홈 방 지하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703-732-9153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 홈 방 1개, 주차 넉넉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단독주택 방렌트
지하방+거실, 워싱 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센터빌 롯데 옆 타운홈, 방 1개 (욕실/화장실)
571-970-8048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렌트
욕실 가구완비 \$800 여학생, 직장인 환영
703-981-7615 (문자)

방렌트, 홀디포 뒤, 주차장 넉넉함,
출입문 따로.
571-237-3411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 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연락처: 301-648-2422

애난데일 메시아장로교회 뒤편 타운하우스
지하방 하나 렌트. 목욕탕, 화장실
703-887-5173

애난데일 방 1개, 부엌, 리빙룸, 샤워
유포, 인터넷, 세탁기 (\$1,300)
703-618-6634

MD Silver Spring 한아름 10분거리
조용한 단독주택 2층. 넓은 마스터 베드룸
쓰실분. 가구완비, 인터넷,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애난데일 한강 근처 타운홈 방세놓음
전화: 571-699-9707

페어팩스 VA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아주 가까운 곳. 직장인 환영
703-419-0337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
넷, 방 1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Fairfax/Burke NOVA, GMU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단독주택 2층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
별도/ 주차/샤워별도, 남자분 / 금연자
29번과 198번 사이 메릴랜드 버트스빌
240-413-2738

MD 렌햄 지역 조용하며 교통 편리
직장인을 원함.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 1, 작은방 1
301-379-9660

애난데일 노바대학 근처 방렌트 (방 1개)
깨끗하고 조용한 고급스러운 집
학생, 여자분 환영.
703-336-328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싱글홈 No HOA
\$470,000

1층, 시니어 생활편리 (방 3),
0.23 에이커 대지,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방 1, 화 1,
병원, 샴핑몰, 그로서리 등 근접 용이

1층 콘도
\$310,000

방 2, 화 2, 전체 실내 Hardwood 구조
저렴한 콘도피 \$260 (Water, Trash 포함)
주차 여건 좋음, 샴핑몰 Costco,
병원 등 인접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5월 7일 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렘블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당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당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중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 팝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

글렌버니아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예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안트옌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가 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뷰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i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 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 분, 세탁소 오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힐터 / 시간: 일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클럽
▶703-939-5223

사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거
리), MD 타주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식으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매매〉

흰색 Vertical Blind(Triple Door 용)
80"H X110"W. 무사용 새것(Box)
Sale \$400 (Reg. \$800)
703-431-4521 (문자 주세요)

이사(downsizing)세일
-treadmill & bike machine \$100
-세라젼 \$100 -3bikes \$100
-tools \$100 -living room set \$300
문의 : 703-581-2631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8,000 / 10,000 / 12,000(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첼트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묘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거실용 대형 카펫 \$1000
-도자기 꽃병(4세트) \$100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허리 운동하는 까꾸리 \$50(사용설명서)
240-477-3232

골프채 판매
-드라이버 9.5도 315cc
-아연 닉센트 4-9 S P 번까지 8개
-던랍(스피엔제) 3-9 P S 7개
-요넥스 6-9 PN 6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0마일
유학생 귀국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죽 쇼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등등
703-597-8909

중고 승용차 팝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페인터넌스와
클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에서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이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달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 청소. 응급 수해 복
구 및 타일 플로우 워크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다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하탕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 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임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703-281-9660(문자)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사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사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Golden Dew Jewelry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마이클 장



410-370-4229
301-275-1494

NMSI Inc. NMLS #201332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racey: I've been putting this off because I thought this place is always busy.

트레이시: 여기는 항상 바빠서 전 이걸 계속 미뤘어요.

Shelley: You caught us at the right time.

셸리: 제 시간에 잘 오셨네요.

Tracey: (handing her a piece of paper) I would like to transfer the registration on a car.

트레이시: (종이를 건네며) 자동차 명의 바꾸려고요.

Shelley: How much did you pay for it?

셸리: 얼마나 내셨나요?

Tracey: Nothing. My mother gave it to me.

트레이시: 전혀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거든요.

Shelley: (handing her a form) Fill this out please.

셸리: (서류 양식을 건네며) 이걸 작성해주세요.

Tracey: This pen ran out of ink. Do you have another one?

트레이시: 이 펜은 잉크가 다 됐네요. 다른게 또 있나요?

catch (someone) at the right time: ~를 적시에 연락하다, 만나다

(Tracey is at the automobile registration counter at the Department of Motor Vehicle talking to a clerk-)

(트레이시가 차량등록에서 직원과 얘기중이다)

Shelley: You can use the one over there.

셸리: 저기 있는 걸 쓰시면 되겠어요.

Tracey: (handing her the completed form) Here you are. Is there anything else?

트레이시: (완성된 양식을 건네며) 여기 있어요. 또 다른 건 없나요?

Shelley: That will be fifteen dollars please.

셸리: 15달러입니다.

▶ put off (something): ~를 연기하다 미루다

"He puts off going to the dentist."

(그는 치과 가는 걸 미룹니다.)

▶ fill out (something): ~를 기입하다 작성하다

"I filled out my application."

(저는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 run out of (something): ~가 다 떨어지다

"We've run out of milk."

(우리는 우유가 다 떨어졌습니다.)

기억할만한 표현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가로열쇠

(1)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음. □□생□ (4)겉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 □약□□ (7)넷째 손가락. 약손가락 (8)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으로 인도하는 곳 (10)콘크리트에 쓰이는 모래나 자갈 따위의 재료 (11)호박, 박, 가지, 고구마 따위를 썰어 말린 것 (12)인도와 유럽의 전설에 나오는, 이마에 뿔이 하나 있다고 하는 동물. 유니콘 (14)끌어서 높은 곳으로 옮김 (16)집의 앞이나 뒤에 평평하게 덮여 놓은 땅 (17)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줌 (18)여객을 승차선시키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곳 (20)땀쌀가루를 고물이 없이 시루에 안쳐 쪄낸 떡. 흰무리 (22)털 여물이 푸른 빛깔을 띤 쌀알 (23)마리 돈을 치름 (24)얼었던 흙이 풀리려고 하는 초봄 무렵 (26)양념을 하지 않고 맹물에 푹 삶아 익힘 (28)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모)에 늦게 들어옴.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 (29)아홉 마리의 소(우) 가운데 박힌 하나의 털.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

세로열쇠

(1)말로 약속함 (2)분에 넘치는 듯싶어 매우 고맙게 여기는 모양 (3)등잔, 남포등, 초 따위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꼬아서 꽂은 실오라기나 헝겂 (4)항문으로부터 방출된 가스체. ~가 잤으면 똥 싸기 쉽다 (5)뼈 없이 좋은 사람. 두루뭉술하고 순하여 남의 비위를 다 맞추는 사람. 어머니는 ~이기만한 아버지를 가끔 원망했다 (6)재주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 학교는 우수한 ~를 배출한 명문 사립고입니다 (9)혼인할 시기를 넘긴 나이 많은 남자 (11)아버지의 누이의 남편 (12)한 사람이 백 사람을 당해냄. 매우 용감함.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궁후의 탈인으로 ~의 실력을 보여 준다 (13)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 물 (15)넝마나 현 종이 등을 쪼는 사람. 풍행이 불량스러운 사람 (19)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함 (21)먹고 난 뒤의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 (22)하늘이 맑게 갠 대낮. ~에 난데 없이 비락이 내리다 (23)한집안에서 먼 윗대의 조상 (24)뻘. ~를 때리다 (25)커다란 주머니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넣어 높이 뜰 수 있게 만든 물건 (27)작은어머니

스도쿠

8			7	3				2
7				5		9		8
	6		8	4	2	1	5	
	1				5	3		
		6	2		3	5		4
		3	9	8		7		1
			4	6			7	3
					1	4		
	3	4				8	1	6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9	1	8	7	6	5	4	3	2
5	6	4	9	2	1	7	8	6
3	7	2	8	6	4	5	9	1
1	9	7	4	8	6	3	2	5
4	8	5	3	1	2	9	7	6
6	2	3	5	7	9	8	1	4
7	5	1	2	4	8	6	9	3
8	3	6	9	5	1	2	4	7
2	4	9	6	3	7	1	5	8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 CVS: / /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애틀랜타

기타 지역

구인

구인

일본식당 구인

*데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금(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한식당

경험자 우대
숙소제공 가능
연봉 협의후 결정
오레곤주 포틀랜드
(971)451-9022

성실하신분

컨비니언스토어
*루이지애나주
(504)430-8426
(504)373-2163

이민생활의 나침반
안내광고
(213)368-2525

꿈을 이루는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미국 생활에 대한
고퀄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미국 라이프의 모든 것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한인최대 온라인 쇼핑몰

건강, 식품, 생활용품, 아이디어 상품, 반려동물 용품,
테마파크 티켓에서 각종 코로나 관련 상품까지

HOT DEAL

이보다 더 저렴할 수는 없다!

LA KTown 213.368.2611

한국제품이 참 많아서 좋아요~ Hotdeal.Koreadaily.com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남성도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야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성 발기 링, 전설의 낙타 속눈썹
& 바르고 하면 남녀 모두 흥풍가는
바르는 성생활 흥분제, 윤활유 젤
1-213-210-9720, 전화,보이스톡,카톡,톡스톡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살해 Up to 40% 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출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전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졸림·변비·오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빠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한의학박사 서영수 명약 산삼금옥탕 도인력사당 50%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합방병원

행복한 사연 꼭 보세요

이메일: YP518119@gmail.com
Tel. 714-733-3206 "카톡, 텍스트 메시지, 전화는 삼가합니다 Dr 박"

돈은 은행에 있다고 사업이 아니지요. 보관과 예금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관되고 있는 동안 유이트 메디칼 그룹 병원 닥터 박입니다. 본인일도하고 당신 돕고 하는 저의 계획은 10만불 2500불, 20만 5000불을 매달 드릴려고 합니다. 아무런 계약없이 은행에 돈이 있고 1원도 남에게 주지않고 추라스트 구좌로서 은행에 보관하며 당신이 언제든 찾아갈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법으로 단단히 지켜줍니다. 한국에서도 ok 특히나 유학생및 노인은 자기돈 은행에 잘 보관하고 저가 돕는 돈으로 공짜로 몇배 행복한 생활하시면서 살다가 원금을 자식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면 자식도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데 받는것 좋으나 부모를 돌본다는것 그들은 가난해요 효도 없어요. 또한 10만불로 사업하세요. 돈은 가지고 있고 매달 2500불 행은입니다 1밀리언 되면 10명 되면 접겠습니다. 서로 이런일이 진행되면 집과 돈을도우려 합니다. 모두 모이면 40일후 매달 저의 구좌에서 돈이 지불됩니다

\$10만 예금 시 \$2,500 매년 \$2.5만 \$20만 예금 시 \$5,000 매년 \$5만 \$1밀리언 예금 시 \$25,000 매년 \$25만

보통 은행 예금처럼 아무때나 원금 찾아가면 됨(계약 없음) 주인은 가지고 있으면서 혜택을 누리는 것임 학생, 노인등등 이것이 사랑이고 행복입니다!!!

위 모든 사항은 준비된 자에게 돕는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자에게는 행복을 나눌 수 없습니다 투자가 아니며, 사기도 아니고 마음 믿어준것이 감사함입니다 이 계획은 기업이 아닙니다. 순수한 가정이고 정신과 의사 그리고 MD의사입니다.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더 나은 생각으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행복을 주고자 합니다.

2024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여름학기 개강 6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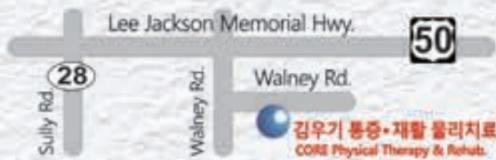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